



7

주제 111(2022)

루계 제395호 월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오늘의 조국사 2022 ISSN 1727—9062

표지: 잠들줄 모르는 송화거리의 밤

지난 4월 수도 평양의 동쪽관문에 사회주의문명부흥의 새 전기를 펼치며 일떠선 송화거리에 평범한 근로자들이 보금자리를 찾다.

그들의 행복한 모습이 불밝은 창가마다에 비끼어 송화거리의 밤은 잠들줄 모른다.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 ······ 2

인민사랑의 불사약 ······ 12

각계각층 동포군중의 무궁한 힘으로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 ······ 14

건국이래 대동란속에 새기신  
현신의 모습 ······ 24

덕과 정으로 승리해가는  
전인민적인 방역대전 ······ 26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서거일에 즈음하여  
영원불멸할 혁명업적 ······ 30

그리움의 마음 ······ 32

온 나라에 새겨진 친필 ······ 34

수기  
30년전 그날을 생각할 때면 ······ 38

자주통일의 근본초석을 마련하시여 ······ 39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마지막모습 ······ 40



32



48



70



조국해방전쟁승리 69돐에 즈음하여  
전승을 안아온 사랑의 힘 ······ 42

수기  
신념으로 온 길 ······ 43

전화의 나날에 울려퍼진 신념의 노래 ······ 44

더 많은 유리제품들을 ······ 46

제품의 다종화, 다양화를 확대 ······ 48

일체식인공수정체개발자들 ······ 50

정성이 명약 ······ 52

민족의 향기  
『효성탕』으로 불리운 삼계탕 ······ 54

태권도사현부부 ······ 56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25차 전체대회 진행 ······ 60

조국의 품에 안겨  
애국의 뜻은 대를 이어 ······ 64

민족과 운명  
민족의 재사 홍기문 ······ 66

우리 나라 역사에 존재 한 국가들  
민족의 시조국가 고조선 (2) ······ 69

백두산 (2) ······ 70

상식  
건강에 유익한 손톱주무르기 ······ 53

태권도단과 기술급수에 따르는  
띠의 종류, 칭호 ······ 59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주체111(2022)년 6월 8일부터 10일까지 당중앙위원회 본부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 이신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회의에 참석 하시였다.

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다.

당중앙위원회 부서 일군들과 성, 중앙기관, 도급지도적기관과 시, 군, 중요공장, 기업소 책임일군들이 방청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김정은동지께 사회를 위임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원회의 소집의 목적과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올해 상반년기간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가 제시한 사업수행을 위해 투쟁방향을 확고히 견지하고 많은 난제들과 위기상황을 완강하게 극복하면서 국가사업전반에서 중요한 경험과 교훈을 축적한데 대하여 언급 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중대보건 위기까지 중첩된 엄혹한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현 국난을 정확히 투시하고 앞으로의 돌발적인 시련까지도 대비한 예견성이 있는 조치들을 능동적으로 강구할것을 요구하고있다고 말씀 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가 포치한 2022년도 당과 국가의 정책집행을 위한 상반년도 투쟁에서 이룩된 긍정적인 성과들을 장려, 확대하고 결점들을 극복하며 올해에 내세운 방대한 과제들을 완결하기 위한 과학적인 실행담보를 적시에 보강하는것과 함께 전당, 전민을 다시 한번 각성시키고 웅기시키는데 이번

전원회의 소집의 목적과 중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시였다.

전원회의에는 다음과 같은 의정들이 상정되었다.

#### 1. 조직문제

2. 2022년도 주요당 및 국가 정책들의 집행정형 중간총화와 대책에 대하여

3. 현 비상방역 상황 관리와 국가방역 능력 건설을 위한 과업에 대하여

4. 당규약과 당규약해설집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 할데 대하여

전원회의는 상정된 의정들을 전원찬성으로 가결하였다.

첫째 의정으로 조직문제를 토의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및 보선하였으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을 해임 및 선거하였다.

또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을 소환 및 보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들을 해임 및 임명, 조선로동당 중앙검사위원회 위원장, 위원을 소환 및 보선하였다.

정부기관의 일부 간부들을 해임 및 임명하였다.

전원회의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제기한 무력기관의 일부 지휘관 조절배치안을 심의하고 승인하였다.

회의에서는 둘째 의정 『2022년도 주요당 및 국가정책들의 집행정형 중간총화와 대책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김덕훈동지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가 포치한 경제정책집행을 위한 상반년도 국가사업진행 정형을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보고하였다.

김덕훈동지는 당의 경제정책 관찰에서 이룩된 성과와 결점들을 자료적으로 제기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리철만동지가 올해 농사실태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보고하였다.

당중앙위원회는 보고들을 청취, 분석하고 해당한 평가를 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둘째 의정에 대한 결론을 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 먼저 지난 6개월간 국가정치활동과 관리, 국가의 발전과 위기대응 관리측면에서 거둔 진일보의 성과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상반년기간 여러 정치적 계기를 통하여 우리 사상, 우리 제도, 우리 국가제일주의 정신을 제고하고 당과 국가, 인민의 일심 단결을 더욱 강화하여 주체의 사회주의의 불가항력을 온 세상에 뚜렷이 시위하였다.

급변하는 국제정치정세와 긴장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조선반도 지역의 안전환경에 대처하여 책임적이고도 필수적인 해당 조치들과 완강한 투쟁을 전개한 결과 국가안전에 대한 담보와



신뢰의 기초를 다지는데서 혁사적인 전진을 이룩하였다.

경제부문에서는 전반적인 생산을 추구하였고 5개년 계획수행의 튼튼한 담보를 마련할 대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을 관찰하기 위해 긴장하게 노력하여 많은 부문들의 생산을 장성시키고 전반적 경제의 상승추이를 이어가고 있다.

국가 경제정책집행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평가할 수 있는 성과는 돌발적인 비상방역 사태 속에서 안정과 발전 속도를 확실히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부문에서는 국가의 방역 등급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전국적 범위에서 경제 조치를 취한 조건에서도 일시적으로 조성된 혼란을 신속히 정돈하고 비상상황의 요구에 맞게 사업을 치밀하게 조직지휘하여 경제정책집행을 완강하게 추진하였다.

최대 비상방역 체계가 가동된 지난 한 달간 경제부문은 위기 대응 능력을 더욱 키우고 주도 세밀한 작전지도 능력을 향진하는 중요한 체험기, 단련기를 경과하였으며 귀중한 경험과 교

훈을 쌓았다.

건설부문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인민들에게 보다 개선된 생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한 현대적인 대거리와 여러 생산 기지 건설이 힘 있게 진척되고 중요 건설 대상들이 준공을 앞두고 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가 결정한대로 국가적인 중요 공업 기지들의 개발 현대화 사업과 지방 공업 발전의 본보기로 창조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훌륭한 성과가 이룩되었다.

농업부문에서는 밀, 보리 농





사에 힘을 넣고 가물피해막이 전투와 봄철영농사업을 동시적으로 완강히 추진하여 당정책 판철에 매진하는 새로운 사상 관점과 앙양된 일본새를 보여 주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의 령도력과 정책에 대한 전체 인민의 확고한 믿음이 더욱 공고화된것이야말로 그 어떤 물질적재부와도 대비할수 없는 귀중한 정치적성파이라고 평가하시고 모든 국사를 성공으로 령도하여 각 방면에서의 더 빠른 발전을 힘 있게 견인해나갈 당중앙위원회

의 의지를 천명하시였다.

결론에서는 상반년기간 당 및 국가정책집행에서 발로된 편향과 원인이 지적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도들과 당적조치들이 언급되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전원회의를 계기로 경제지도관리에서 새로운 변침점을 마련하여야 할 진요성을 밝히시고 하반년도 당과 국가의 경제정책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파업을 천명하시였다.

결론에서는 금속, 화학, 전력, 석탄공업을 비롯한 기간공

업부문의 하반년도 투쟁방향과 실행대책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였다.

결론은 농사와 소비품생산을 올해 경제파업들중 급선무로 제기하였다.

농업부문에서 앞그루로 심은 밀, 보리농사결속을 잘하여 당의 새로운 농업혁명방침이 첫해부터 은을 나타내게 할데 대한 문제, 자연재해로부터 농작물들을 최대로 보호할수 있게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는데 대한 문제, 비배판리의 과학화를 제고하는데 대한 문제, 농산작업

에서 기계화비중을 높일데 대한 문제, 과학적인 농사지도, 강력한 국가적지원을 강화하는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당의 농업정책 판철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실천방도들이 언급되였다.

경공업부문에서 인민들의 생활상수요를 기준으로 내세우고 생산투쟁,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 인민들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들이 강조되였다.

결론에서는 건설부문에서 올해 계획된 중요대상건설과제들을 무조건 다련발적으로 완수하여 우리식 사회주의의 본래를 만천하에 과시하는데 대한 전투적파업이 제시되였다.

결론에서는 내각과 도, 시,

군들에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농촌살림집건설의 첫해과제를 반드시 수행하여 우리당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농업근로자들이 실물로 체감하게 할데 대한 문제, 과학기술을 경제발전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과학의 힘을 급속히 키우기 위한 사업에 국가적인 힘을 집중하는데 대한 문제, 경제관리를 결정적으로 혁신하는데 대한 문제 등이 중요하게 언급되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현시점에서 교육에 대한 관점을 바로가질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시였다.

교육은 당면한 가시적인 사업이 아니라 전망적인 사업이며 교육에 대한 정확한 노력은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디딤돌로 된다고 하시면서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 정책적지도와 교육내용에 대한 기술적지도를 포함하여 국가적으로 교육혁명을 위한 지도와 방조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언명하시였다.

결론에서는 미증유의 엄혹한 시련을 동반하는 올해의 전인민적진군을 힘있게 격려하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당정책판철의 혁명적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게 하는데서 문학예술, 출판보도부문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투쟁방향이 제시되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국가방위력강화에 계속 큰 힘을 넣을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오늘 우리 국가의 안전환경은 매우 심각하며 주변정세는 더욱 극단하게 격화될수 있는 위험성을 떠고있으며 이같은 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국방력강화를 위한 목표점령을 더욱 앞당길것을 재촉하고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자위권은 곧 국권수호문제이며 우리의 국권을 수호하는데서는 한치도 양보하지 않을 우리 당의 강대강, 정면승부의 투쟁원칙을 재천명하시고 공화국무력과 국방연구부문이 강행추진해야 할 전투적파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결론에서는 대적투쟁과 대외사업부문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들과 전략전술적방향들이 천명되었다.

결론에서는 상반년기간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실태가 엄밀히 분석총화되고





투쟁도수를 계속 높여나가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이 언급되었다.

각급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 조직자격능력을 제고하고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실속있게 진행하여 변혁적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사업방향들이 제시되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미중유의 엄혹하고 간고한 시기를 더 강해지고 더 세련되는 기회로 삼고 억센 의지와 완강한 분발력을 발휘하여 활기찬 국가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아야 하며 올해의 모든 사업들이 계획된 발전속도에서 정확히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결론을 마치시면서 인민경제계획수행이자 당과 인민에 대한 충실성이 고 헌신적복무임을 명심하고 모든것을 총집중하여 뜻깊은 올해의 계획들을 빛나게 완수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령도력과 전

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그 절대의 위력으로 현존하는 모든 장애와 난관을 주동적으로 타개하고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기를 강력히 견인할 투쟁방략이 명시된 김정은동지의 결론에 열렬한 박수로써 전폭적인 지지 찬동을 표시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강령적인 결론은 조성된 엄혹한 형세를 주체적힘, 내적동력강화의 호기로 반전시키며 발전과 변혁의 5개년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단계로 되는

2022년에 뚜렷한 진일보를 이룩하기 위한 가장 명철한 투쟁지침과 과학적인 방도들을 밝힌 귀중한 실천강령이며 위력한 전투적기치로 된다.

회의에서는 셋째 의정 《현 비상방역상황관리와 국가방역 능력건설을 위한 과업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악성전염병 위기를 최종적으로 해소하고 안정을 회복하며 국가의 방역 능력, 위기대응능력건설을 힘 있게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전

략전술적인 방략들이 명시된 보고를 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세계적인 악성전염병사태가 발생한이래 여러 차례의 주요당회의들에서 비상방역문제를 토의해온데 이어 이번 전원회의에서 방역문제를 별도의 의정으로 취급하는 의도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국가방역 사업이 돌발적인 중대고비를 거쳐 봉쇄위주의 방역으로부터 봉쇄와 박멸투쟁을 병행하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현 상황에서

우리 당과 국가앞에 나서는 급 선무는 방역사업에 내재하고 있는 결점들과 폐단들을 시급히 퇴치하고 나라의 방역능력강화를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강구하는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국가방역사업을 전반적으로 정확히 투시하고 보다 심화되고 발전된 방역정책을 책정, 실시하여 사회주의건설과 국가운영의 안전을 확고히 담보하며 인민들에게 믿음직한 방역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나라의 보건토대강화와 방역능력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할 필요성과 절박성을 지적하시고 최대비상방역기간 각 부문에서 나타난 폐단과 결점들을 비판적, 발전적으로 찾고 당원들의 생각과 행동을 하나로 일치시키면서 당원으로서의 본분과 책임을 다하도록 이끌어나갈 때 오늘의 방역전쟁에서의 승리가 더욱 앞당겨지게 될것이라고 언명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최종적으로 해소하고 방역 안정을 회복하기 위하여 내각과 비상방역부문, 보건부문, 사법검찰, 안전, 보위기관들이 틀어쥐고 철저히 실행하여야 할 중요과업들과 방도적 문제들을 제기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방역정책은 염격성에 과학성과 선진성이 결합될 때 승리에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시면서 방역체계와 방법을 부단히 개선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우리의 방역은 그 어떤 제도 적장치나 물질기술적 수단보다 인민들의 자각적 일치성을 기반으로 하는 방역이며 인민대중에게 의거하는 전민항전, 전민합세로써만 대승을 이룩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각급 당조직들에서 전체 인민을 방역대전에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상동원사업을 힘있게 전개하며

비상방역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지도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모든 당세포들이 현 방역위기상황에서 해야 할 일을 주동적으로 찾고 당원들의 생각과 행동을 하나로 일치시키면서 당원으로서의 본분과 책임을 다하도록 이끌어나갈 때 오늘의 방역전쟁에서의 승리가 더욱 앞당겨지게 될것이라고 언명하시였다.

일군들이 항상 방역전선의 전위에서 당원대중과 광범한 군중을 이끌며 비상방역체계의 가동정형을 현지에서 정확히 료해장악하고 적시적인 대책을 강구하는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오늘의 방역전에서 각급 당조직들이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조직력과 지도력을 발휘하여야 하며 혁난국을 타개하는 과정이 그대로 당조직강화에로 이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당면한 방역위기를 성과적으로 타개하는 것과 함께 국가방역능력건설을 동시적으로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하여 중요하게 지적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가 목적하는 국가방역능력은 나라앞에 도래하는 그 어떤 보건위기도 주도적으로, 안정적으로 역

제, 관리, 해소할수 있는 공고화된 사업체계와 질서, 기술력량과 물질적토대, 잠재력의 총체이라고 하시였다.

우리식의 방역정책실행으로 2년이상 나라의 방역안전을 보장하고 최대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하는 과정에 축적한 귀중한 경험과 교훈에 대하여 개괄분석하시고 현재까지 실시해온 모든 비상방역정책과 지침들, 당과 정부가 실시한 조치와 시책들은 국가방역능력건설의 커다란 밑천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국가의 방역능력강화를 위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는에서 나서는 당면목표와 전망목표, 상세한 실행방도들을 제기하시였다.

지금의 방역전쟁은 앞으로의 그 어떤 보건위기속에서도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사수할수 있는 값비싼 경험과 책략을 얻는 계기로 되며 일치단결된 우리 사회의 조직력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이 최대로 발양되도록 당사업과 경제조직사업, 보건의료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방역안정을 되찾는데서 세계가 알지 못하는 기적을 안아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비상방역사업을 주도세밀하게, 능숙하고 실속있

게 조직전개하며 나라의 방역 능력, 위기대응능력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귀중한 우리 인민의 건강과 안녕을 철저히 지켜내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보고를 접하면서 전체 참가자들은 혁명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과 충실성, 인민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무정신과 혁신성을 지니고 방역전선의 전위에서 최대의 분발력과 투지, 고도의 능력과 지혜를 발휘해나갈 결심을 굳게 가다듬었다.

전원회의 확대회의는 김정은동지의 강령적인 결론과 보고의 사상과 정신에 립각하여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가 포치한 2022년도 투쟁과업을 철저히 실행하기 위한 과학적인 대책안을 수립하는 분파별 연구 및 협의회를 진행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정치국 위원들이 분파별로 연구 및 협의회를 지도하였다.

9개 분파로 나뉘어 진행된 연구 및 협의회들에서는 참가자들의 진지하고 동원적인 판점과 비상한 열의속에 결정서초안에 반영된 과업들이 깊이 연구토의되고 건설적인 안들이 적극 제기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

위원회 조직비서인 조옹원동지가 결정서초안작성소조에서 종합한 의견들을 전원회의에 보고하였다.

전원회의는 종합된 의견들을 최종회의하고 둘째 의정에 대한 결정서 《2022년도 주요당 및 국가정책과업들을 일부 조정함에 대하여》와 세째 의정에 대한 결정서 《국가방역능력을 비상히 강화하기 위한 결정적대책을 세울데 대하여》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넷째 의정 《당규약과 당규약해설집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할데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은 심의에 제기된 해당 내용들이 당의 전투력과 령도력을 보다 강화하고 조직사상적기초를 공고히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일치하게 인정하였다.

회의에서는 해당 결정이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동지께서 전원회의를 결속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이번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수립된 전진적이며 혁신적인 계획들은 류례없는 국난속에서 사소한 주저도 없이 당과 혁명의 요구앞에 용감히 나선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의 자신심의 충만이고 충천한 용기이며 굳센 의지의 발현이라고 하시면서 당중앙지도기관 성

원들과 그들을 통하여 전당의 당조직들과 당원들에게 전투적 격려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오늘 우리 앞에 나선 중대한 과업은 우리 인민이 당과 정부앞에 내린 지상의 명령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책무를 무겁게 새겨안고 전진하는 대오의 진두에 서서 사회주의건설과 방역대전의 두 전선에서 혁혁한 승리를 획득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의 드높은 혁명적열의속에 진행된 전원회의 확대회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과 위업에 무한히 충실했음을 염숙히 선서하면서 자기 사업을 성과적으로 마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 확대회의는 당중앙의 혁명사상과 유일적령도를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시련 속에서 다지고 다져온 불패의 전진동력으로 부흥강국의 새시대,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기를 파감히 펼쳐가는 우리 당의 혁명적면모와 백절불굴의 전투적기상을 다시금 뚜렷이 파시한 투쟁과 전진의 회의로 주체혁명사에 뜻깊게 아로새겨질것이다.

\*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가정에서 마련하신 약품들을 조선로동당 황해남도 해주시위원회에 보내시였다.

## 인민사랑의 불사약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황해남도 해주시에서 급성장내성전염병이 발생한것과 관련하여 6월 15일 가정에서 마련하신 약품들을 조선로동당 황해남도 해주시위원회에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가정에서 마련하신 약품들을 본부당위원회에 전하시면서 지원약품들을 해주시당위원회에 보내주며 시당위원회가 전염병으로 앓고있는 대상세대들을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약품들을 빨리 전해주어 치료사업에 조금이라도 보태게 해달라고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가정에서 마련하여 보내주신 약품들이 16일 해주시의 주민세대들에 전달되었다.

인민의 생명안전을 제일중대사로 내세우고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인민들곁으로 더 가까이 다

가가 고락을 함께 나누는 당중앙의 육친의 정이 어린 사랑의 불사약을 받아안은 해주시의 인민들은 고마움의 눈물로 두볼을 적시며 《김정은동지 만세!》, 《조선로동당 만세!》를 목청껏 웨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몸소 가정에서 준비하여 보내주신 의약품이라는것을 우린 첫눈에 알수 있었습니다. 하나하나의 약품들에 얼마나 세심한 정성이 깃들었는지…》

그들은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으며 인민의 불행을 가셔주는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다는 숭고한 리념을 지니시고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로 온넋을 불태우시는 그이의 자애로운 영상을 이 세상 제일 위대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뜨겁게 새겨안았다.

그들은 해주시의 세대들에 가정에서 준비하신 지원약품들을 빨리 전해주어 치료사업에 조금이라도 보태게 해달라고 당부하시였다는 보도에 접하여 감격을 금치 못했는데 이렇게 약을 받아안고보니 그이께서 찾아오신것만 같아 온 집안식구가 기적처럼 일어났다고 격정을 터치였다.

낮이나 밤이나 그이께서 보내주신 의약품에 대한 가지가지 전설들이 끝없이 태여나 모내기 전투로 들끓는 연백의 전야에 새로운 힘을 더해 주었다.

지난 5월 14일에도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협의회를 지도하신 그이께서는 방역전에서 반드시 대승을 이룩할 결심과 의지를 거듭 피력하시며 언제나 인민과 운명을 함께 할 결의와 하루빨리 온 나라 가정에 평온과 웃음이 다시 찾아들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준비한 상비약품들을 본부당위원회에 바친다고 하시면서 어렵고 힘든 세대에 보내달라고 제의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자애로운 그 영상을 뵈옵는 순간 온 나라는 말그대로 하나의 거대한 걱정의 도가니로 화하였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오늘의 돌

발사태앞에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안녕부터 먼저 생각하며 가슴을 조이고있는 매일, 매 시각 우리의 건강과 생명안전을 위해 그처럼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바쳐가시면서도 가정에서 써야 할 귀중한 약품마저 우리에게 돌려주시니 세상에 우리 총비서동지처럼 자애로운 인민의 어버이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몸소 마련하여 보내주신 그 하많은 사연깃든 약품들이야말로 정말이지 돌우에도 고목에도 꽂을 꽈울수 있는 사랑의 불사약입니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한편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받들어 당중앙위원회 일군들과 그 가족들이 성의껏 마련하여 보낸 지원물자와 의약품도 황해남도인민들에게 가닿았다.

그이께서 계시여 이 땅에서는 시련은 있어도 슬픔은 없었고 자연의 재앙은 있어도 불행이란 말을 들을수 없었다는것이 인민이 실체험을 통하여 가슴깊이 새겨안은 삶의 진리이다.

\*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주신 약품을 받아안고 격정을 터치는 황해남도 인민들

# 각계각층 동포군중의 무궁한 힘으로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25차 전체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서한

주체 111(2022)년 5월 28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10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80돐을 혁명 적대경사로, 민족최대의 대정치축전으로 성대히 경축한 뜻깊은 해에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25차 전체대회가 열리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주체조선의 존엄과 무진막강한 위력이 세계만방에 높이 떨쳐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내외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열리는 총련 제25차 전체대회를 맞으며 대회참가자들을 비롯한 전체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까지 정히 담아 가장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동포애적인사를 보냅니다.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공민단체인 총련을 강화하고 재일조선인운동을 끊임없는 상승일로로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총련의 최고결의 기관인 전체대회가 차지하는 위치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돌이켜보면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뿌리를 둔 재일조선인운동이 주체의 궤도우에 확고히 들어선 총련결성의 그날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혁정에는 계승과 혁신, 전진과 도약의 분수령으로 된 전체대회들이 긍지높이 아로새겨져있습니다.

총련의 창건자이시며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총련에서 전체대회가 진행될 때마다 사랑의 축하문을 보내주시여 재일조선인운동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재일동포들의 행복한 앞날을 따뜻이 축복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적 해외교포운동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들고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이역의 모진 풍상고초를 슬기롭게 이겨내며 전체대회들을 계기로 애국애족의 큰 산을 하나씩 넘어왔습니다.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의 전 력사가 험로역경의 가시덤불을 헤쳐야 하는 고행의 련속이였지만 제24차 전체대회가 있은 때로부터 지난 4년간은 적대세력들의 가증되는 반공화국, 반총련책동과 세계적인 대류행병의 확산으로 우리 동포들모두가 너무도 많은 고생을 겪어야 했던 엄혹한 시련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형언할수 없는 격난이 중첩되는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사회주의조국과 보조를 같이하면서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의 전구마다에서 혁혁한 승리의 개가를 높이 울리였습니다.

조국래왕이 중단된 혈악한 상황이 지속된 속에서도 자기의 본래를 뚜렷이 파시하며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길에 뜨거운 애국지성을 고여온 재일동포들의 숭고한 정신세계에서 조국인민들은 커다란 힘을 얻으며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유산인 총련의 귀중함을 더욱 강렬하게 절감하였습니다.

나는 전대미문의 년대들에 조국의 통일발전과 재일조선인운동의 승리적전진을 위하여 생의 귀중한 모든것을 흔연히 다 바친 한덕수동지, 리진규동지, 서만술동지, 리계백동지를 비롯한 로세대 총련일군들과 유명무명의 1세동포들에게 승고한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사회주의조국과 운명의 펴줄을 잊고 이역의 모든 곤난을강인하게 인내하며 그 어떤 명예와 보수도 바람이 없이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기 위한 성스러운 길에 깨끗한 량심과 의리를 보석처럼 수놓아가고있는 전체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정의로운 활동을 적극 지지성원해주고있는 일본의 량심적인 인사들과 평화애호적인 인민들, 각국의 외교사절들에게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와 그

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은 새 전성기개척을 위한 지난 10여년간의 투쟁을 통하여 크게 약진하였으며 자체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단계를 벗어나 더 높은 령마루를 향해 나아가는 전면적발전기에 들어섰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열리는 총련 제25차 전체대회는 강성총련건설의 원대한 포부와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애국애족의 진군을 가속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뜻깊은 회합으로 될것입니다.

현시기 총련의 기본임무는 각계각층 동포군중의 힘을 하나로 모아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더욱 힘차게 열어나가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상과 혈연의 정으로 굳게 뭉친 동포들의 진함없는 힘은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의 영원한 승리적담보입니다.

이것은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의 력사가 립증한 절대불변의 진리이며 제24기 총련사업의 자랑찬 총화이기도 합니다.

총련에서는 애국애족으로 불리는 광범한 동포군중의 무궁한 힘을 유일무이한 원동력으로 하여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승리적으로 열어나가

야 합니다.

총련조직앞에 나서는 파업은 첫째로, 총련의 모든 활동을 동포제일주의로 지향시키고 일관시켜나가는 것입니다.

동포제일주의는 위대한 주체사상,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재일조선인운동실천에 구현한 사상입니다.

주체사상을 자기의 지도사상으로 하고있는 총련은 마땅히 동포제일주의조직이 되여야 하며 동포제일주의구호를 들고나가야 합니다.

총련의 각급 조직들과 단체, 사업체들은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익의 옹호자, 대변자로서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옹호확대하기 위한 투쟁을 언제나 주선으로 들어쥐고나가야 합니다.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은 피땀으로 총련조직을 일떠세우고 동포자녀들의 배움터를 목숨으로 지켜낸 1세들의 염원을 한시도 잊지 말고 교육권, 기업권, 생활권옹호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울려야 합니다.

각급 총련조직들과 단체들에서는 권리옹호사업을 애국애족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한 중차대한 문제로 보고 철저히 대응해나가야 하며 동포들의 권익옹호를 위한 대중운동의 폭을 더욱 넓혀나가야 합니다.

총련은 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을 비롯한 재일동포들의 조국태왕을 가로막은 일본당국의 부당한 제재조치를 철회시키기 위한 투쟁도 강도높이 벌려나가야 합니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해외동포권익옹호법에 따라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기 위한 국가적대책을 철

저히 세울것이며 동포들의 자주권, 생존권, 발전권을 굳건히 담보하기 위한 특례조치들을 속속 실행해나갈것입니다.

총련의 각급 조직들과 단체, 사업체들은 뜨거운 혈연의 정을 안고 재일동포들의 생활상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봉사복지활동에도 전심전력하여야 합니다.

이역의 동포들을 한시도 잊지 못해하시며 온갖 사랑과 은정을 아낌없이 베풀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뜻으로 귀중한 우리 재일동포들의 복리를 위해 나라의 억만재부를 다기울여주고싶은것이 나의 진정입니다.

총련은 모든 사업과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동포들의 요구와 리익,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고 동포들의 생활과 밀착된 봉사복지활동을 근기있게 벌려 그 과정을 통하여 총련조직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대중적지반을 크게 넓혀나가야 합니다.

동포생활상담소들의 운영을 정상화하고 결혼, 취직, 고령자, 장애자문제를 비롯하여 동포들의 생활상요구를 성심성의를 다해 풀어주어야 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동포들속에 더 자주, 더 깊이 들어가 동포사회에 덕과 정으로 서로 돋고 위해주는 상부상조의 미풍이 차넘치게 하여야 합니다.

총련은 재일동포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보살피는 사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지진과 해일, 태풍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땅에서 동포들의 생명과 건강, 보금자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것보다 더 진절하고 중요한 사업은 없습니다.

총련에서는 각급 기관들과 학교들, 동포가족들의 내진견딜성도 전반적으로 료해대책하며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동포들에 대해서는 더 가슴을 조이며 남다른 관심을 기울여 한명의 동포도 불상사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총련의 선제적인 대책과 성심어린 분투에 의하여 세계적인 대류행병으로 인한 동포사회의 피해상황은 비록 크지 않지만 절대로 자만하거나 방심하지 말고 동포들의 생명안전보장에 계속 큰 힘을 넣어 동포들모두가 무병무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총련조직앞에 나서는 파업은 둘째로,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재일조선인운동의 미래를 책임질수 있는 교육, 동포들이 자녀들을 마음놓고 말길수 있는 교육으로 강화발전시키는것입니다.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은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의 생명선이며 재일동포사회의 존립과 장래가 달려있는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은 철두철미 자기 수령, 자기 조국, 자기 민족을 똑바로 알게 하는데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교육일군대렬을 총련애국위업의 미래를 책임진 직업적혁명가들의 대오로 정예화하는데 주되는 힘을 넣어야 합니다.

재일본조선인교직원동맹에서는 모든 교원들을 새세기 교육혁명방침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의 교육자적자질과 능력을 제고하는데 중심을 두고 지도방조를 알심있게 진행해나가야 합니다.

총련교육일군들은 재일조선인운동의 장래운명을 책임진 남다른 궁지와 사명감을 자각하고 민

족교육의 찬란한 개화기를 앞장에서 열어나가야 합니다.

민족교육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세계적인 교육발전추세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을 부단히 혁신하여야 합니다.

각급 학교들에서 정치사상교육과 민족성교육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동포들의 사업과 생활에 필수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주는 방향에서 교육내용을 더욱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학생들의 년령심리적특성에 맞는 새로운 교수방법, 다양한 과외교양방법들도 적극 창조하고 서로 공유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총련 각급 학교 학생수를 결정적으로 늘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 조직이 달라붙어 학생인입사업과 조선대학교 진학지도사업을 책임적으로 진행하는것과 함께 우리 유치원원아수를 더 늘이고 준정규교육당의 운영과 확대에도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재일본조선인교육회와 각급 조직들과 단체, 사업체들에서는 민족적자존심을 걸고 동포자녀들에게 남부럽지 않은 교육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을 꾸준하게 진행해나가야 합니다.

아버지회, 어머니회뿐 아니라 총련의 모든 조직들이 민족교육사업을 애국사업의 제1순위에 놓고 학교를 사랑하고 도와주는 운동을 일관하게 벌려 민족교육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파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조선대학교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해나가야 합니다.

조선대학교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세워주시고 장중보옥처럼 귀중

히 여기시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최고전당이며 세상에 둘도 없는 해외교포대학입니다.

조선대학교에서는 총련애국위업의 미래를 떠 메고나갈 믿음직한 핵심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키워 재일조선인운동의 백년대계를 억척같이 담보해나가야 합니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항상 조선대학교를 마음속에 품어안고 총련의 계승자육성사업을 물심량면으로 적극 도와주어야 합니다.

총련조직앞에 나서는 파업은 셋째로, 재일동포사회 민족성을 고수하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나가는 것입니다.

민족성은 조국인민들도 강해야 하지만 해외에 사는 동포들일수록 더 강해야 합니다.

민족을 특징짓는 첫째 징표는 소여 민족의 혈통이며 둘째 징표는 언어입니다.

조국 멀리 이역땅에서 사는 동포들에게 있어서 민족의 혈통을 고수하는데 애국의 참모습이 있으며 우리 말을 하는 시간은 곧 애국으로 사는 시간입니다.

총련에서는 동포들사이에 혈연적뉴대를 이어주는 수단인 우리 말과 글을 즐겨쓰도록 하는것이 민족성고수의 출발점, 애국의 첫걸음으로 된다는것을 깊이 새기고 총련조직과 단체, 기관과 학교, 가정을 비롯하여 동포사회 그 어디에서나 아름답고 우수한 우리 말이 랑랑히 울려퍼지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우수한 전통과 문화, 풍습이 면면히 이어지도록 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총련의 출판선전기관들에서는 우리 민족이 창

조한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유산, 단일한 혈통과 고상한 미풍양속을 소개선전하는데 시간과 지면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총련의 새세대들이 단결력과 개척정신이 강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조선민족의 억센 기질과 웃어른을 존경하고 이웃들과 화목하며 부모처자를 사랑하는 우리 민족의 우수한 미풍양속을 순결하게 이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동포가정들에서 예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민속명절들에 민족음식을 해먹는것을 적극 장려하고 우리 학교들에서도 학생들에게 조선웃짓기와 김치담그기를 비롯한 민족료리를 만드는 방법도 잘 가르쳐주며 민족음악무용소조운영도 활성화하여야 합니다.

동포들이 민족옷을 사랑하고 즐겨입도록 하여야 합니다.

조선치마저고리는 타향에서 국기가 없이도 조선사람임을 알게 하는 우리 민족의 상징입니다.

재일조선녀성들과 우리 학교 녀학생들속에서 조선치마저고리를 입는것이 동포사회의 훌륭한 풍조, 하나의 관례로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총련에서는 민족성고수를 전 조직적, 전 동포적인 운동으로 더욱 기운차게 벌려 재일동포들이 세대를 이어가며 이역땅에서 산다 해도 절대로 동화되지 않는 조선의 얼굴, 민족의 얼굴로 각광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총련조직앞에 나서는 파업은 넷째로,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에 부응하여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에 특색있게 이바지하는것입니다.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는 우리 공화국이 역사의 온갖 도전을 파감히 짓부시며 나라의 존엄과

지위를 비상한 경지에 올려세운 자존과 번영의 새시대입니다.

총련의 각급 조직들과 재일동포들은 이런 시대에 사는 공민적공지와 영예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조국통일과 나라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애국사업에 떨쳐나서야 합니다.

조국통일은 더는 미룰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제이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앞에 나서는 제일 중차대한 애국사업입니다.

총련의 조국통일사업은 본질에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시고 견지하여오신 하나의 조선로선을 옹호하고 관철하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입니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을 적극 지지옹호하고 그것을 내외에 널리 선전하여야 합니다.

총련은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민단》을 비롯한 조직밖의 동포들과의 민족단합사업을 강화하여 통일애국력량을 더욱 증대시키며 그들과의 공동행동, 공동투쟁을 활발히 벌려야 합니다.

총련은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조직들과의 민족적뉴대와 련계를 긴밀히 하여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을 형성하는데서 해외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담당수행하여야 합니다.

총련은 자주, 민주,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의로운 활동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의 분렬주의책동을 규탄배격하기 위한 투쟁을 즐기차게 벌려나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 조국은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기에 들어섰습니다.

날과 달이 다르게 시간을 다투며 몰라보게 변모되는것이 사회주의조국의 자랑찬 현실입니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사회주의조국을 견결히 옹호하고 문명부강한 국가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재일동포들은 몸은 비록 이역땅에 있어도 언제나 마음속에 조국을 안고 살아야 하며 사회주의조국의 절대적인 지지자, 견결한 옹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건국의 첫 기슭으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우리 공화국을 떠받드는 초석이 되고 대들보가 되여준 우리 인민의 불굴의 군상속에는 재일동포들의 모습도 력력히 새겨져있습니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조국의 강성과 번영에 이바지하여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 사회주의강국건설에 특색있게 기여하여야 합니다.

총련은 주체혁명위업, 총련애국위업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대외사업을 능동적으로 벌려나가야 합니다.

현시기 총련대외사업의 기본임무는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밑에 일본을 비롯한 세계각국 인민들속에서 우리의 지지자, 동정자대렬을 끊임없이 확대하여 총련과 재일동포사회의 평온과 안정을 보장하는것입니다.

총련은 일본의 각계인사들파의 사업을 신축성 있게 벌리고 민주세력들, 조선의 통일을 지지하는 련대성조직들과의 사업을 더욱 짜고들어 광범한 일본인민들속에서 우리 공화국과 총련을 우호적으로 대하는 지지자, 동정자대렬을 계속 늘여나가야 합니다.

각급 조직들과 단체들에서는 지역대외사업에도 응당한 힘을 넣어 지방자치체들이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을 옹호하기 위한 총련의 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협력해나서도

록 하여야 합니다.

총련은 일본주재 외국대표부들과의 사업을 용의주도하게 진행하는것과 함께 국제무대들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우리 공화국의 국익을 견결히 옹호하고 총련조직과 재일동포들의 애국애족 활동에 대한 지지찬동의 목소리가 더 크게 증폭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열기 위한 중대한 투쟁파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변화된 환경과 시대적요구에 맞게 총련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먼저 주체의 사상론을 확고히 들어주고 재일조선인운동의 전진동력을 배가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합니다.

총련부흥의 새시대에로 가는 지름길은 오직 하나 동포들의 마음을 하나로 움직이고 그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동하는데 있습니다.

위대성교양, 애국주의교양, 조선민족제일주의교양, 재일조선인운동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교양, 신념교양은 총련사상사업의 기본내용입니다.

총련에서는 새세대들을 비롯한 동포들속에서 위대성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조국 멀리 이역땅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사상과 은혜로운 사랑의 역사가 세세년년 줄기차게 흐르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상교양의 내용을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말고 알심있게 진행해나가며 위대성교양을 하면서도 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을 하고 조선민족제일주의교양을 하면서도 재일조선인운동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교양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애국주의교양을 우리 국가제일주의와의 밀접한 연관속에서 실속있게 진행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총련의 각급 조직들과 기관들에서 민족최대의 명절들과 공화국창건기념일, 총련결성기념일 등을 맞으며 실정에 맞게 국기게양식을 전통화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각급 학교들에서도 우리 국가의 상징물들에 대한 교양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입학식과 졸업식을 비롯한 여러 계기들에 학생들이 애국가를 부르며 자기 손으로 국기도 띠워보게 하여 그들의 소중한 꿈이 언제나 사회주의조국과 잇닿아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본주의일본땅에서 진행되는 총련의 선전문화사업에서 공식화된 방법이나 만능의 처방이란 있을수 없습니다.

총련에서는 사상사업에서 형식주의를 철저히 근절하며 동포들이 호응하고 공감하는 교양방법들을 끊임없이 탐구적용하여야 합니다.

출판선전물들의 침칠력과 견인력을 부단히 높여나가야 합니다.

조선신보사와 조선통신사에서는 신문과 인터네트를 통하여 더 많은 동포들에게 조국소식, 동포소식을 신속히 전해주며 우리의 문화가 중단없이 과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재일본조선문화예술가동맹과 금강산가극단을 비롯한 선전문화담당기관들과 예술단체들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며 지방가무단들의 공연과 각종 문예소조활동을 활발히 벌려 동포사회가 우리 노래, 우리 장단, 우리 춤으로 흥성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총련중앙을 비롯한 각급 조직들과 단체, 사업체들을 일심단결의 성새, 애국애족의 믿음직한 성돌로 굳건히 다져야 합니다.

총련을 일심단결의 성새, 애국애족의 믿음직

한 성돌로 다진다는것은 그 어떤 외부적공격과 비난으로부터 사회주의조국을 견결히 옹호하고 동포들의 삶과 행복을 굳건히 지켜내는 철옹성으로 만든다는것을 말합니다.

재일조선인운동의 참모부인 총련중앙상임위원회의 지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합니다.

총련중앙은 조직안에 주체의 사상체계, 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제일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모든 사업과 활동을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대로만 드팀없이 조직진행해나가야 합니다.

각급 조직들과 단체, 사업체들에 대한 정책적 지도를 강화하며 조직내부사업에 각별한 힘을 넣어 대오의 일심단결을 강화하고 핵심의 대가 굳건히 이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총련 현본부들의 조직장악력과 실천력을 부단히 높여야 합니다.

현본부는 재일조선인운동의 지역적지도단위이며 총련중앙의 지역별 보좌단위입니다.

현본부들에서는 아래단위들에 대한 사업체계를 더 정연하게 세우고 지도방조사업을 일상적으로 진행하여 중앙의 결정과 지시가 훌륭한 결실을 맺도록 하여야 합니다.

본부들의 지역적편차를 줄이기 위한 사업도 목적의식적으로 진행하여 중소본부들이 일떠서고 용을 쓰는 새 모습을 창출하여야 합니다.

지부중시, 분회중시사상을 확고히 틀어쥐고 모든 기층조직들을 애국애족의 광채를 눈부시게 뿌리는 생기발랄한 산 조직으로 강화발전시켜야 합니다.

지부를 각계층 동포들속에 들판히 발을 불인 지부, 동포핵심들이 주동이 되어 움직이는 지부

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부들에서는 비전임일군들을 적극 인입하여 활동력을 더욱 높이며 지부경쟁운동을 지속적으로 벌려 모든 지부들이 전체대회결정판철의 실제적인 집행단위로서의 사명을 다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동포들의 기본생활단위이며 말단기층조직인 분회가 힘을 내야 전 조직이 강화되고 동포사회의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되어나갈수 있습니다.

분회건설의 가장 리상적인 목표는 위대한 진리로 굳게 결합되고 따뜻한 정이 흐르는 따뜻한 동포동네로 만드는것입니다.

총련에서는 분회대표자대회를 전체대회 못지 않게 중시하며 분회일군들의 정치의식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심화시켜 모든 분회를 건강하고 혈기왕성한 조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분회들에서는 분회강화를 위한 4대파업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애국애족창조운동을 일관성있게 벌려 동포들이 사는 방방곡곡에서 화목과 단합, 애국애족의 열기가 끊임없이 고조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총련의 계층별 군중단체들의 전투력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합니다.

자본주의일본땅에서 가업과 생존의 혈치 않은 부담을 걸어지고도 오로지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길에 자신의 귀중한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동포상공인들과 새세대 청년들, 동포녀성들의 뜨거운 진정과 애국심을 떠나서 총련의 번영과 흥하는 동포사회를 생각할수 없습니다.

총련의 군중단체들에서는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임무를 항상 자각하고 모든 회원, 동맹원들이 전세대들이 발휘한 숭고한 정신을 끊임없이 이어나가

도록 하는것과 함께 동포들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대중운동을 왕성하게 벌리는 과정을 통하여 자기의 대오를 백배해나가야 합니다.

동포상공인들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는 총련의 기본군중이며 재일조선인운동의 주력군입니다.

상공회를 비롯한 경제단체에서는 동포상공인들의 기업을 보호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적실한 대책을 따라세우며 세계경제발전동향과 추세를 민감하게 포착하고 전문화수준을 높여 동포들의 상기업활동을 실리가 나게 방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재일본조선청년상공회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무어주신 젊은 상공인들과 학부형세대들을 망라하고 있는 재일조선인운동의 주력군후비 대오입니다.

청년상공회는 결성초기에 들었던 구호 《유족한 동포사회를 위하여》, 《꽃봉오리들의 미래를 위하여》를 청상회운동의 기본종자, 영원한 주제로 들고나가야 합니다.

청년상공회에서는 새 교복을 떨쳐입고 우리 학교로 가는 재일조선학생소년들의 밝고 명랑한 모습에 총련의 미래가 비낀다는것을 분분초초 명심하고 민족교육지원사업을 계속 선두에서 주도해나가야 합니다.

총련부흥의 새시대에 향한 영예로운 진군길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기치는 마땅히 동포청년들이 들어야 합니다.

재일본조선청년동맹에서는 각급 조직들의 자립성과 독자성을 높이는데 중심을 두고 동포청년들의 심리적특성에 맞는 다양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동포사회를 젊음이 약동하는 청년판, 새 세대판으로 들썩이게 하여야 합니다.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에서도 일본대학들에 다니는 동포청년학생들파의 사업을 꾸준하게 벌려 그들이 조선의 넋, 민족의 얼을 지니고 살아나가도록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은 전체 재일동포녀성들의 권리와 리익을 대표하는 총련의 가장 큰 군중단체입니다.

자녀들에게 조국애를 심어주고 민족적 자존심을 키워주는 첫 스승도 동포녀성들이며 동포자녀들의 아름다운 꿈을 지켜 민족교육의 화원을 제일 품을 들여 가꾸는 원예사도 다름아닌 재일조선녀성들입니다.

녀성동맹 각급 조직들에서는 우리 학교를 거점으로 모든 애국애족활동을 조직전개해나가며 재일동포사회를 민족성이 강하고 화기가 넘치는 하나의 대가정으로 만드는데 한몫 단단히 하여야 합니다.

녀성동맹에서는 애국사업실천에서 단련육성된 젊은 동포녀성들을 적극 내세워 그들이 재일조선인운동의 한쪽수레바퀴를 대를 이어 억세게 떠밀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재일조선인운동의 지휘성원인 총련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작품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켜야 합니다.

총련일군들은 재일동포들의 운명을 스스로 걸어지고 애국의 길에 나선 직업적인 정치활동가들이며 우리 조국이 제일로 아끼고 내세우는 해외혁명지들입니다.

우리 조국은 총련일군들에게 일본에 있는 조선사람들의 존엄과 운명을 전적으로 맡기고 있으며 모든 일군들이 비상한 각오와 열정을 안고 조국과 민족이 부여한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기를

기대하고있습니다.

총련의 모든 일군들은 군중관점을 바로세우고 각계각층 동포들파의 사업을 뼈심을 들여 잘해나가야 합니다.

총련일군들은 동포대중을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여기고 하늘처럼 신성히 떠받들며 언제나 동포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사업해나가야 합니다.

늘 동포들속에 있으면서 혈육들과 집안일을 의논하듯이 동포들과 무릎을 맞대고 제기되는 문제의 해결방도를 찾으며 그들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천사만사를 풀어나가는것을 습벽화하여야 합니다.

자기 관하 동포들의 마음을 속속들이 헤아리고 그에 맞게 천가지, 만가지의 적중한 사업방법을 다 찾아 군중파의 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해나가야 합니다.

총련일군들은 동포들을 무한히 존대하고 존경하여야 하며 동포군중을 거울로 삼아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절대로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총련의 모든 일군들은 《동포들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자!》는 구호를 더 높이 들고 동포들의 행복한 생활과 안위를 위해 혼심을 다 바치는 성실하고 근면한 심부름군이 되여야 합니다.

동포들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헌신, 일군들과 동포들사이에 오고가는 따뜻한 정이 끝 총련의 힘입니다.

총련일군들은 동포들의 요구가 백가지, 천가지이라고 해도 어느 하나도 가볍게 대하지 말아야 하며 그 모든것을 최상의 수준에서 해결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여야 합니다.

총련일군들은 홀로 고독하게 살아가는 동포들

에게는 효성이 지극한 자식이 되여주고 생활상고충을 겪는 동포들에게는 자별한 형제, 자매가 되여주며 동포들이 더워하면 산들바람이 되여주고 추워하면 우등불이 되여주어야 합니다.

총련일군들은 어려운 동포일수록 더 원심을 쓰고 이그려진 동포일수록 더 가까이 다가가 그들의 생활상고충과 마음속옹어리를 풀어주어야 하며 높은 인격과 넓은 도량으로 동포모두를 품어안아 애국애족의 한길로 인도하여야 합니다.

총련의 전체 일군들은 우리 동포들의 모든 꿈과 리상을 다 이루어주고싶어 하는 조국의 간절한 당부를 정히 새겨안고 동포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헌신적복무정신으로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더 힘차게 매진해나가야 합니다.

총련중시, 해외동포중시는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국책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유산인 총련을 더없이 소중히 여기고 백방으로 보호할것이며 각별한 정을 기울여 《조국의 사랑은 따사로워라》의 노래가 주체적해외교포운동사와 더불어 영원히 울려퍼지게 할것입니다.

나는 모든 대회참가자들이 총련부흥의 휘황한 설계도를 따라 귀중한 우리 동포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우리 후대들을 위하여 더욱 용기백배 정진해나아가리라는것을 굳게 믿으면서 총련 제25차 전체대회가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의 더 높은 봉우리를 향해 돌진하는 위대한 전환의 리정표로 빛나게 장식되기를 바랍니다.

\* \* \*

# 건국이래 대동란속에 새기신 헌신의 모습

지난 4월말 원인을 알수 없는 열병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여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에 전파 확산되었다.

짧은 기간에 35만여명의 유열자가 나왔다.

국가비상방역지휘부와 해당 단위들에서는 지난 5월 8일 수도의 어느한 단체의 유열자들에게서 채집한 검체에 대한 엄격한 유전자배열분석결과를 심의하고 최근에 세계적으로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오미크론변이비루스 《BA. 2》와 일치하다고 결론하였다.

이로써 주체109(2020)년 2월부터 2년 3개월에 걸쳐 굳건히 지켜온 비상방역전선에 파공이 생기는 국가최중대비상사건이 발생하였다.

악성전염병의 전파는 건국이래 대동란이라고 할수 있다.

조선이 어떻게 전염병파의 대전을 헤쳐나가겠는가?

세계의 초점은 조선에 집중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5월 12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를 소집하였다. 회의에서는 국가방역사업을 최대 비상방역체계로 이행할데 대한 정치국 결정서가 채택되었다.

이어 그이께서는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방문하시고 전국적인 비상방역상황을 료해하시였다.

이로부터 불과 며칠동안에만도 그이께서는 여러 차례 중요회의들을 지도해주시였다.

련일 소집된 그 모든 회의의 안건은 오직 하나인민의 생명수호였다.

5월 14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협의회를 소집하신 그이께서는 우리 당중앙이력사의 시련앞에서 다시한번 자기의 령도적 역할을 검증받을 시각이 왔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무엇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인가, 우리가 누구를 위해 목숨까지 바쳐 싸워야 하는가를 더 깊이 자각할 때이라고, 우리 당은 자기의 중대한 책무앞에 용감히 나설것이며 무한한 충실성과 헌신으로 조국과 인민의 안전과 안녕을 전적으로 책임질것이라고 하시면서 방역전에서 반드시

대승을 이룩할 결심과 의지를 거듭 피력하였다.

그이께서는 언제나 인민과 운명을 함께 할 결의와 하루빨리 온 나라 가정에 평온과 웃음이 다시 찾아들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준비한 상비약품들을 본부당위원회에 바친다고 하시면서 어렵고 힘든 세대에 보내달라고 제의하였다.

5월 15일 그이께서는 또다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협의회를 소집하시고 방역대책토의사업을 진행하시였다.

전국적인 의약품공급정형에 대하여 언급하신 그이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이 전염병전파상황을 신속히 억제, 관리하기 위해 국가에비의 약품들을 긴급해제하여 시급히 보급할데 대한 비상지시까지 하달하고 모든 약국들이 24시간운영체계로 넘어갈데 대하여 지시하였지만 아직까지도 동원성을 갖추지 못하고 집행이 바로되지 않고 있으며 의약품들이 약국들에 제때에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현 실태를 분석하시였다.

그리고 인민군대 군의부문의 강력한 력량을 투입하여 평양시안의 의약품공급사업을 즉시 안정시킬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특별명령을 하달하시였다.

협의회를 마치시는 길로 그이께서는 평양시안의 약국들을 찾으시여 의약품공급실태를 직접 료해하시였다.

한밤중에 약국에 들어서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뵈옵는 순간 판매원들은 짐장이 출아드는것만같았다.

열병이 급속히 전파된 때로부터 수많은 환자들과 그 가족, 친척들이 약국을 다녀갔고 판매원들自身도 금방 병을 앓고난 뒤였던것이다.

그이께서는 최대비상방역체계가 가동된 이후 무슨 약들이 공급되였는가, 약품들을 규정대로 보관하고있는가, 약국들이 24시간봉사체계로 전환하였는가, 환자들이 찾아왔을 때 상담은 하는가, 해열제와 항생제는 어떤것들이 있는가, 주민들이 지금 제일 많이 찾는 약은 어떤 약들이며

가격은 얼마인가를 세심히 료해하시였다.

『너무도 급한 나머지 글쎄 저희들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 이런 곳에 나오시면 어떻게 하시는가고 말씀올리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에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인민들에게 의약품을 공급, 판매한 정형에 대하여 하나하나 물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모습은 정말 앓고있는 자식을 위해 한목숨도 서슴없이 내대고나선 어머니의 모습이였습니다.』라고 약국의 판매원들은 두불을 눈물로 적시며 이야기하였다.

그이의 모습은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가까이다가가 자식에게 더 원심을 쓰는 어머니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이께서는 그 이후에도 여러 회의들을 소집하시고 인민사수의 맨 앞장에 계시였다.

매일 TV를 통해 나라에 들이닥친 방역위기를 타개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위민 헌신의 모습을 새겨안으며 인민들은 이렇게 격정을 터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로고를 우리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이께서 인민의 생명안전을 위하여 또다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협의회에서 필요한 대책을 다 세워주시고도 자신은 돌보지 않으시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이께서 몸소 가정에서 준비하여 보내주신 상비약품과 당중앙위원회 일군들, 가족들이 성의껏 마련한 의약품들을 받아안은 황해남도인민들과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보내주신 의약품지함을 받아안은 평양시안의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 어렵고 힘든 세대들도 한없는 고마움과 격정에 눈물지었다.

황해남도 태탄군농기계작업소의 한 노동자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협의회에서 언제나 인민과 운명을 함께 할 결의와 하루빨리 온 나라 가정에 평온과 웃음이 다시 찾아들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준비한 상비약품들을 본부당위원회에 바친다고 하시면서 어렵고 힘든 세대에 보내달라고

제의하실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였는데 오늘 우리 가정에서 그 상비약품을 받아안는 순간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찾아오신것만 같아 쓰러져있던 온 집안식구들이 기적처럼 일어나 만세를 부르고 또 부르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격정을 터치였다.

진정 어려운 때일수록 인민들과 고락을 같이 하시며 따뜻이 품어주고 구석구석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그이께서는 인민은 곧 자신께서 일편단심으로 높이 받들어보시는 하늘같은 존재였다.

그이께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으로부터 넘겨받으신 가장 귀중한 유산도 인민이였고 순간도 떨어져 살수 없는 존재도 사랑하는 인민이였다.

그 인민을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높이 떠받드시였다.

인민의 지위, 인민을 대하는 관점과 립장을 최상의 경지에로 승화시키신 그이의 위대한 인민관, 혁명관, 인생관을 귀감으로 삼고 일군들도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과 고락을 같이하고 있다.

하기에 날이 갈수록 조국의 민심은 더욱 안정되고 굳건해졌으며 조국은 방역대전에서 승세를 주동적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고있다.

시련속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더 잘 느끼는 법이다.

비바람도 눈바람도 폭풍도 막아주는 그 어머니의 사랑이 있어 조국은 천지풍파가 닥쳐온대도 끄떡없을것이다.

지금 조국인민들은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책임진 숭고한 사명감을 안으시고 방역대전을 진두지휘하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위민헌신의 세계에서 필승의 신심과 용기를 백배하고있으며 당의 령도따라 자기들의 귀중한 생명과 생활, 미래를 끌까지 지켜낼 결의에 넘쳐있다.

# 덕과 정으로 승리해가는 전인민적인 방역대전

이미 알려진 것처럼 세계적인 보건위기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조국에 스텔스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류입되는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악성 전염병 전파사태를 신속히 억제하기 위한 긴급 회의들을 소집하시고 국가방역사업을 최대 비상방역 체계로 이행 할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를 채택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적시적인 대책들을 련이어 취해 주시였다. 한편 몸소 자신의 가정에서 준비하신 상비약품들을 어렵고 힘든 가정들에 보내주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언제나 인민과 운명을 함께 할 결

의와 하루빨리 온 나라 가정에 평온과 웃음이 다시 찾아들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마련하여 보내주신 약품들은 당중앙위원회 일군들, 가족성원들이 마련한 의약품들과 함께 황해남도의 인민들에게 전달되었다.

이 소식은 온 나라를 격정으로 끓어번지게 하였으며 서로 돋고 위해주는 혼연일체의 위력으로 전인민적인 방역대전을 파감히 전개해 나가게 하였다.

조국의 당, 정권기관 책임 일군들, 전국의 많은 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가정들에 보관하였던 의약품과 지축하였던 량곡, 자금들이 의료기관들과 전쟁로병, 영예군인 가정들과 어렵고 힘든 세대들에 보내졌다.

그런가 하면 인민생활을 책



서로 돋고 위해주는 공산주의적 미덕과 미풍으로 전인민적인 방역대전을 파감히 전개해 나가고 있다.



**전염병전파상황을 따라가면서 대책하는  
피동적인 방어가 아니라 전파근원을 철저히  
차단, 소멸하기 위한 사업이 보다 적극화되  
고 있다.**



하기 위한 미풍들이 높이 발휘  
되었다.

그들의 미풍을 따라배워 전  
국각지의 의료부문 일군들과 의  
료일군양성기관의 일군, 교원,  
학생들이 검병검진사업과 환자  
치료에서 맡은 책임과 본분을  
다해가고 있다.

그런 속에서 보건부문 사업  
경력을 가진 수천명의 년로보  
장자들까지 자원적으로 의료봉  
사에 참가하여 자기의 지혜와  
기술, 정력을 다 바쳐가고 있다.

전염병전파상황을 따라가면  
서 대책하는 피동적인 방어가  
아니라 전파근원을 철저히 차  
단, 소멸하기 위한 사업이 보다  
적극화되었다.

일군들부터가 솔선 량곡수송  
차, 남새운반차, 기초식품수송차  
등에 올라 현지를 오가며 주민  
공급사업을 짜고든것을 비롯하여  
주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도모해주  
기 위한 사업이 본격화되었다.

전국의 모든 리, 읍, 구, 동들  
에 이동봉사대들이 전개되었다.

전국적으로 근 8 000개의 봉  
사대들이 식량과 의약품, 기초  
식품, 1차소비품을 비롯한 생  
활필수품들을 주민들에게 전진  
공급하였으며 그 봉사자수는 수  
만명에 달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특별명령을 받아안고 조선인민  
군 군의부문의 군인들은 약품들  
이 시민들에게 더 빨리, 더 정  
확히 가닿도록 약품공급과 치  
료전투를 벌리였으며 그들속에  
서 인민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

한 사업체계가 확립되었다.

중앙비상방역부문에서는 전  
국적으로 마스크, 보호복 등의  
생산을 늘이며 전국적인 방역물  
자 총 수량을 종합적으로 장악  
하고 위기발생지역들에 통일적  
으로 동원리용하도록 하기 위한  
대책들을 수립해나갔다.

지역별, 단위별로 봉쇄, 격  
폐된 최대비상방역상황속에서  
도 신심드높이 사회주의건설의  
줄기찬 전진을 이룩해갈 일군  
들과 근로자들의 비등된 열의  
속에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수행의 중요전구들인 금속, 화  
학, 전력 등 기간공업부문에서  
생산정상화의 불길이 타오르고  
인민들에게 문명한 생활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화성지구 1만  
세대 살림집건설장과 련포온실  
농장건설장을 비롯한 각지에서  
대건설전투가 중단없이 추진되  
었으며 농촌들에서는 가물피해  
를 최소화하고 모내기를 제철  
에 끝내기 위한 사업이 적극 벌  
어졌다.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전체 인민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조직력과 규률성, 단  
결력, 고상한 집단주의와 서로  
돕고 이끄는 공산주의적미풍이  
날로 고조되는 가운데 조국의  
전반적인 전염병전파상황은 안  
정적으로 억제관리되고 있다.

본사기자 강경수

# 영원불멸할 혁명업적

력사는 단순한 시간의 루적이 아니다.

이 행성우에 미중유의 대흔적을 남기며 위대한 역사가 흐르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곁을 떠나신 7월의 그날로부터 어느덧 28년의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수십년세월이 흐른 오늘에도 조선민족의 마음속에 위대한 수령님은 태양의 모습으로 영생하고 계신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대중중심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조직령도하시는 과정에 이룩하신 고귀한 경험을 일반화하시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리론 실천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그이의 걸출한 령도에 의하여 일제를 쳐부시고 해방된 조국땅에 건당, 건국, 건군의 변혁적 대업들이 이룩되었으며 갓 창건된 공화국을 요람기에 압살하려고 덤벼든 강대한 제국주의침략자들도 무릎을 끓게 하는 영웅조선의 신화가 창조되였다. 전후 벽돌 한장 성한것이 없는 재더미 우에 인민의 참된 삶과 행복의 보금자리인 우리식 사회주의가 일떠서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은 조국인민이 어머니로 믿고 따르는 존엄높은 조선로동당파 그 어떤 정치동란속에서도 추호의 흔들림없고 세월이 갈수록 자주, 자립, 자위로 더욱 강대해지는 사회주의조선의 위상에 력력히 어려있다.

정녕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것은 조선민족의 영원한 긍지이며 영광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드팀없이 계승발전되였으며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새로운 높이에서 출기차

게 전진하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자주시대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빛내이시고 수십성상 당파 인민을 이끄시여 주체의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시였으며 강국건설의 새 역사를 펼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파 혁명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정립하시고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로 사회주의건설에서 눈부신 비약과 변혁을 안아오시여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이민위천의 숭고한 역사가 변함없이 흐르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이룩해놓으신 그 모든것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고 수령님들의 유훈을 끝까지 실현하시려는것, 바로 이것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철석같은 신념이고 의지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쌓으신 혁명업적을 칭송하는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수많이 발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시고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혁명의 영원한 지도적지침으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였다.

이 역사적선언은 그대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리키신 길에서 단 한치의 편차도, 단 한걸음의 양보도 없을 그이의 철석같은 맹세이기도 하였다.

그 불멸의 대강들은 전진의 기치가 되였으며 온 나라 인민의 가슴마다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위대성을 더 깊이 심어주고 그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게 하였다.

뿐만아니라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염원을 현실로 꽂피우시기 위하여 위민현신의 자욱을 새기시였다.

그 어느 단위, 그 어느곳을 찾으시여도 그이께서 먼저 묵해하시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정형이고 그이께서 강조하시는것도 수령님들의 사상과 의도대로 일을 잘해나갈데 대한 가르치심이다.

현대적으로 완공된 과학자살림집지구를 돌아보시고서는 오늘 저녁 금수산태양궁전에 계시는 수령님과 장군님께 과학자살림집지구가 훌륭히 일떠선데 대하여 보고드리려고 하는데 그 보고를 받으시면 수령님과 장군님께서도 기뻐하실것이라고, 수령님과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고 인민들이 기뻐하는것을 보는 몇에 혁명을 하는것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시던 그이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리용하시던 저택(5호택)이 자리잡고있던 보통문주변 강안지구에도 근로자들의 호화주택을 일떠세워주시였다.

이미전부터 5호택이 자리잡고있는 경치좋은 보통강강안지구에 다락식주택구를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줄 구상을 무르익히신 그이께서는 5호택을 철거하고 그 구역에 현대적인 다락식살림집을 지어 인민들에게 안겨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면 아마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기뻐하

실것이라고, 자신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일부러 이런 좋은 자리로 묵여두시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처럼 분망하신 속에서도 몸소 설계안들을 지도해주시면서 건물들의 배치와 형태를 보다 다양하게 하는것을 비롯하여 형성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설계안들의 완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지난 4월 사회주의변화가로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가 훌륭히 완공되였을 때에는 몸소 나오시여 준공테프도 끊어주시였다.

진정 그이께서 찍으시는 자욱들에 의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뿌려주신 귀중한 씨앗들이 알찬 열매로 주렁지고 인민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새라 새롭고 놀라운 성과들이 이룩될수 있은것이다.

나라와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위민현신에 의하여 사회주의조국은 주체혁명의 위대한 새 승리를 향해 신심드높이 전진하는 영광의 시대를 이어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언제인가 오늘 우리 조국의 높은 존엄과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값높은 삶, 우리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들은 그 어느것이나 다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하신 존함과 결부되어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걸출한 령도따라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변함없이 계승완성해나가는 한길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수령님의 력사는 이 땅우에 무궁토록 흐를것이다.

본사기자 임향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

# 그리움의 마음

조국인민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소중히 자리잡은것이 있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못잊어하는 인민의 그리움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서거하신 때로부터 세월이 흘렀지만 한평생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인민의 그리움은 세월이 갈수록 강렬해만지고있다.

인민들은 절세위인들의 동상과 태양상을 찾아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고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되새겨보고 있다.

생존해계실 때에도 그려했지만 서거하신 후에도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는 사업에 최대의 충성과 지성을 다 바쳐오고 있다.

돌이켜보면 조국인민들은 지난 수십년간 언제나 한마음으로 절세위인들을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는것을 숭고한 도덕적의무로, 본분으로 간주하여왔다.

금수산태양궁전건설의 나날에 온 나라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이 바친 충성과 지성의 세계는 참으로 고결하고 뜨거운것이였다.

인민군장병들은 금수산태양궁전내부를 최상의 수준에서 완벽하게 꾸리고 궁전외부의 록지건설과 공원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렬치였다.

궁전수목원에 심을 수십종의 진귀한 꽃들과 수백그루의 수종이 좋은 나무를 직접 자기 손으로 키워 보내온 나어린 소년단원으로부터 두메산골에서 궁전건설에 쓰일 대돌을 채취해온 로인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인민들이 궁전건설에 온갖 지성을 다하였다.

정녕 금수산태양궁전의 대돌 하나, 한포기의 찬디에도 위대한 수령님들을 영생의 모습으로 높이 모시려는 인민의 고결한 충성이 뜨겁게 깃들어있다.

하기에 세계의 진보적인류는 금수산태양궁전 이야기로 인민의 백옥같은 충성의 도덕의리심이 낳은 수령영생의 대기념비, 수령과 인민사이에 맺어진 뜨거운 혈연의 관계가 낳은 태양의 성지라고 감탄하고있다.

수도 평양의 중심부 만수대언덕과 각 도소재지들, 중요기관들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과 태양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정중히 모시고 영생탑, 현지지도사적비, 표식비를 건립하는 사업에도 인민은 백옥같은 마음을 바치였다.

조국인민들의 그리움의 마음은 금수산태양궁전과 동상, 태양상, 혁명사적지와 혁명전적지 등을 찾아 뜨거운 지성을 다해가고있는데서 표현되고있다.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청진에서부터 백록련을 안고 10여년세월 금수산태양궁전 수목원을 찾고 찾는다는 청진시의 강분희녀성에 대한 이야기며 뜻밖의 대국상을 당한 그날로부터 28년간 수만송이의 아름다운 꽃들을 키워 해마다 수십차례 걸쳐 만수대언덕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에 드리고 주변관리사업을 해오고있는 대동강구역에서 사는 한 로인네 외의 이야기, 30년세월 금수산태양궁전 수목원과 만수대언덕, 만경대혁명사적지와 칠골혁명사적지를 비롯한 유서깊은 곳들에 무려 10만여그루의 꽃들을 정성들여 가꾸어오고있는 서재렬로인을 비롯하여 수많은 인민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을 경모하여 충성의 길을 변함없이 걷고있다.

절세위인들에 대한 그리움은 혁명파 건설에서 인민의 지칠줄 모르는 열의를 더해주었다.

수령의 영생은 곧 인민의 마음속에서의 영생, 인민의 생활속에서의 영생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의 모습을 언제나 가슴 속에 새겨안은 조국인민들은 수령의 생전의 뜻과 염원을 받아들여 일터마다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자립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가슴에 새기고 주체철생산을 늘여가는 로동계급과 협동별마다에 량심을 바쳐가는 다수확농민들, 첨단돌파의 날과 밤을 이어가는 과학자, 기술자들,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는 방직공장의 직포공들과 광산의 광부들을 비롯하여 온 나라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념원, 사회주의강국념원을 꽂피우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그 열의와 더불어 조국의 이르는 곳마다에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없이 일떠서고 나라의 방위력은 더욱 굳건해지였다.

오늘 조국인민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강렬해지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진군길을 다그치고있다.

본사기자 김성경

# 온 나라에 새겨진 친필



백두산밀영에 건립된 친필송시비

해마다 7월이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절절해진다.

조국인민은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위대한 수령님을 더욱 그리워하고 있으며 가장 순결한 마음으로 그이의 영생을 기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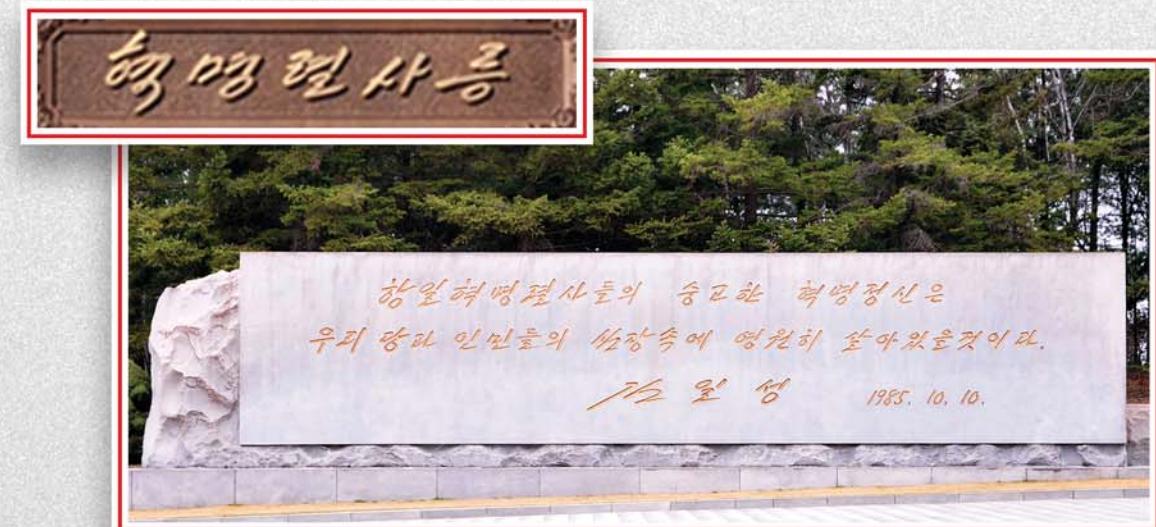
한평생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는 이 시각 조국땅 곳곳에 력력히 새겨져 빛나는 절세위인의 불멸의 친필들은 우리의 가슴을 더욱 뜨겁게 울려준다.

백두산밀영의 친필 송시비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회주의조선의 밝은 앞날을 축복해

주시며 한자한자 쓰신 《광명성찬가》가 모셔져 있다.

《백두산마루에 정일봉 솟아있고  
소백수 푸른 물은 굽이쳐흐르누나  
광명성 탄생하여 어느덧 순둥인가  
문무충효 겸비하니 모두다 우러르네  
만민이 칭송하는 그 마음 한결같아  
우렁찬 환호소리 하늘땅을 뒤흔든다  
1992. 2. 16 김일성》

이 글발은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려가는 조국인민의 가슴속에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밟들어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신념



조국파 인민을 위하여 한목숨바쳐 싸운 항일혁명렬사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영웅적위훈에 대하여 남기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친필을 새긴 비들  
[대성산혁명렬사릉(우),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아래)]





기념비적 건축물들마다 새겨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친필  
(서해갑문,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부문에도 친필을 남기시였다.



교육기관들에 새겨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친필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친필은 수도시민들의 교통상편의를 위해  
대동강에 건설된 다리들에도 새겨져 있다.



동명왕릉개건 기념비

과 의지를 백배해 주고 있다.

대성산 주작봉마루에 있는 혁명렬사릉에는 조국해방전에서 영웅적으로 싸우다 희생된 항일혁명투사들의 투쟁정신과 업적을 영원히 빛내여주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혁명적 의리의 세계를 전하는 그이의 뜻깊은 친필비가 있다.

『항일혁명렬사들의 숭고한 혁명정신은 우리 당과 인민들의 심장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김일성 1985. 10. 10.』

친필비앞에서 사람들은 그이의 고결한 동지애의 세계를 뜨겁게 안아본다.

나라의 명산들에도 위대한 수령님의 뜻깊은 친필들이 모셔져 있다.

『묘향산』, 『상원암』, 『만폭동』 등과 같은 친필들은 그이께서 조국산천에 대한 한없는 사랑을 안고 쓰신 글발들이다.

자력갱생의 위대한 창조물인 서해갑문에도 갑문의 완공을 기념하여 그이께서 몸소 쓰신 친필비가 있다.

『서해갑문은 우리 인민의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이룩한 위대한 창조물이다.

갑문건설자들에게 영광이 있으라!

김일성 1986. 5. 22.』

만대에 길이 빛날 그이의 친필글발들은 김형직 사범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고려성균관과 같은

나라의 교육전당들에도 모셔져 있다.

수도의 중심부에 있는 옥류교, 여기에도 그이께서 몸소 쓰신 친필이 있다.

당시 인민들의 교통문제를 넘려 하시여 대동강에 다리를 새로 놓도록 하신 그이께서는 다리가 완공된 다음에는 그 이름을 『옥류교』라고 지어주시고 몸소 활달한 필체로 써주셨다.

그 은덕을 인민은 오늘도 못잊어 하고 있다.

릉라다리, 충성의 다리 등에 새겨진 위대한 수령님의 친필도 그이의 인민 사랑의 전설을 길이 전하고 있다.

판문점에도 조국통일을 위해 바치신 그이의 거룩한 한생과 쌓으신 불멸의 업적을 전하는 친필비가 있다.

『김일성

1994. 7. 7.』

볼수록 그이의 한생이 가슴뜨겁게 안겨오는 글발들이다.

조국의 북단 백두산으로부터 분계연선에 이르기까지 어디에나 있는 위대한 수령님의 친필들, 그 글발들을 보며 인민은 그이의 네원을 조국땅우에 현실로 꽂아위갈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고 있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리영철

수 기

# 30년전 그날을 생각할 때면

7월이 다가올수록 이 땅우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그리움의 대하가 더욱 뜨겁게 흐르고 있습니다.

남녀로소 모두가 그려 하듯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은 우리 체육인들의 가슴마다에도 날이 갈수록 더욱 불타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는 주체81(1992)년 9월 10일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날 나는 태권도전당을 찾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 꽃다발을 드리는 영광을 지니었습니다.

그이께서는 내가 올린 꽃다발과 조국의 영예를 떨쳐갈 맹세를 들으시고는 나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면서 고맙다고, 당에서 태권도전당을 크게 지어주었는데 꼭 보답해야 한다고 이르시였습니다.

나는 태권도전당을 마련해주신 감사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대로 하겠다고 말씀을 울리였습니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무척 대견하신듯 나의 어깨를 다정히 두드려주시고나서 경기장안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였습니다.

이날 태권도전당을 돌아보고나신 그이께서는 우리 태권도선수들의 시범출연을 보아주시기 위해 주석단에 나오시였습니다.

그때 나는 그이앞에서 1:3대결을 보여드리게 되였습니다.

나는 지금도 경기장에 나가 위대한 수령님께 어떻게 인사드리고 혼자서 3명이나 되는 남자상대를 발파 손으로 쳐서 어떻게 쓰러뜨리였는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미숙한 동작들을 주의깊게 보아주시며 시종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던 그이의 태양파도 같으신 모습은 오늘도 생생합니다.

내가 출연한 1:3대결을 보아주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어린 녀성태권도선수가 혼자서 남자 3명을 재치있게 넘어뜨리는데 날렵스럽게 잘한다고 치하해주시며 크게 박수도 쳐주시였습니다.

시범출연이 끝나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늘 태권도시범출연에 참가하여 높은 기술과 투지를 발휘한 태권도선수들과 사범들에게 자신의 감사와 인사를 전해주어야 하겠다고 하시였습니다.

우리 태권도선수, 사범들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바쳐가시며 태권도를 발전시키고 대중화하기 위한 교시를 주신 그이께서는 기념사진을 찍기 위하여 우리들이 서있는 활영대쪽으로 오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태권도선수들과 사범들속에서 나를 알아보시고 분에 넘치게도 자신의 몸가까이에 불러주시였습니다.

너무도 크나큰 감격과 기쁨으로 하여 몸돌바를 몰라하는 나를 자애로운 눈길로 바라보시고나서 그이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였습니다.

그후 우리 나라에서는 제8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그이의 사랑과 믿음에 무한히 고무된 우리 태권도선수들은 경기에 출전하여 평시에 련마한 높은 기술을 발휘함으로써 또다시 우승의 영예를 쟁취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옵던 그날로부터 어느덧 30년이 되여옵니다.

돌이켜보면 연약한 꽃망울에 불파하였던 나의 자그마한 재능의 싹을 귀중히 여겨 태권도선수로 키워주시고 여러 차례나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시켜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떨치도록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신 그이의 사랑과 믿음이 있어 김일성청년영예상수상자로, 인민체육인으로 성장할수 있었다고 나는 궁지높이 말하고싶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강산이 변하여도 우리 태권도선수들의 가슴속에는 해빛같은 미소를 지으시며 잘한다고 치하해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영원한 태양의 모습이 뜨겁게 새겨져있습니다.

김일성청년영예상수상자 인민체육인 한수옥



력사적인 7. 4북남공동성명이 발표된 때로부터 50돐기의 년륜이 아로새겨졌다.

## 자주통일의 근본초석을 마련하시여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남측대표에게 민족분열을 지속시킨다면 우리 민족은 두개의 민족으로 영원히 갈라질수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그것을 허용할수 없으며 하루빨리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넘겨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뜻깊은 이날을 맞는 온 겨례의 가슴가슴은 자주통일위업실현의 길에 불멸할 업적을 쌓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그리움으로 끓어번지고 있다.

조선이 분렬되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민족공동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우리 민족자체의 힘에 의하여 하나의 조선으로 통일되어야 한다는것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시고 한평생 구현하여오신 주체적인 조국통일로선이다.

그이의 사색과 활동은 언제나 조국통일에로 지향되었으며 바로 그 길에서 민족공동의 자주통일대강인 조국통일3대원칙이 마련되었다.

주체61(1972)년 7월 4일 북파남이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을内外에 엄숙히 발표하던 역사의 그날을 겨레는 잊지 못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60

(1971)년 8월 남조선의 여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인 인사들과 아무때나 접촉할 용의가 있다는 폭넓은 협상방안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령도하시였다.

그이의 주동적인 발기와 령도에 의해 주체61(1972)년 5월 평양에서는 민족분렬이래 처음으로 북남고위급정치회담이 열리게 되였다.

그이께서는 회담을 위해 평양에 온 남측대표를 친히 만나

이 좋겠다고 하시였다.

담화는 새벽녘에야 끝났다. 그이께서는 한밤을 지새우며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을 밝히시여 조국통일운동발전의 획기적인 국면을 마련해주신 것이다.

드디어 주체61(1972)년 7월 4일 조국통일을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방법으로,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 원칙에서 실현할데 대한 조국통일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북남공동성명이 세계에 울려퍼졌다.

정녕 7. 4공동성명의 채택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위대한 수령님의 민족애와 로고, 현신의 결실이였다.

력사적인 7. 4공동성명소식에 접한 남조선각계는 《통일의 밝은 서광》, 《자주통일의 거보》, 《민족분렬의 비극에 종지부를 찍고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기게 한 역사의 새로운 분기점》 등으로 열렬히 지지환영하였다.

7. 4공동성명의 발표는 온 겨례에게 조국통일에 대한 희망과 락관을 주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기치따라 전진하는 조국통일운동의 새시대를 펼치였다.

겨레는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조국통일을 위해 쌓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다.

리정원

# 마지막 모임

(전호에서 계속)

나는 전에 아버지한테서 13도창의대장 리린영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었다.

이 사람이 13도창의대장으로 추대된 과정을 보면 아주 극적이고 교훈적인데가 있었다. 판동의 병장들이 리린영을 자기네 의병부대의 지도자로 추대하려고 찾아갔을 때 그는 럼종직전에 이른 로부의 곁에서 병시중을 들고있었다. 리린영은 그때 의병은 다른 사람이 지휘할수 있으나 부모는 한번 돌아가면 다시 만나뵐수 없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로부를 두고 내가 어떻게 감히 집을 떠난단 말인가, 나는 불효자가 되고싶지 않다고 하면서 그 청을 사양하였다. 그러다가 나흘째 되는 날에야 그들의 청을 받아들이였다.

전국의 의병들은 앞을 다투어 리린영의 휘하에 모여들었는데 그 수는 무려 8 000명에 달하였다. 얼마후에는 허위, 리강년의 부대까지 합세하여 창의군의 혁량은 8 000명으로부터 1만명으로 불어났다. 소총으로 무장한 3 000명의 구한국군도 이에 합류하였다.

전국의 의병들은 리린영을 13도창의대장으로 추대하고 그의 진두지휘에 따라 서울로 진격하였다. 서울로 쳐들어가서 일거에 통감부를 격파하고 보호조약을 폐기하자는것이 의병의 궁극적인 목적이였다.

이 작전계획에 따라 의병부대들이 서울로 육박하고 있을 때 부친상을 당한 리린영은 지휘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홀연히 고향으로 내려가고 말았다. 그의 귀향은 선발대로 나섰던 허위의 패보와 함께 의병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부대를 외해에로 몰아넣는 비참한 결과를 빚어내게 하였다.

나는 학생운동을 할 때 길림에서 류길학우회에 망라된 성원들과 함께 부친상을 당한 리린영이 고향에 내려간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한적이 있었다.

그때 많은 동무들이 리린영을 쓸개빠진 의병장이라고 비난하였다. 1만명을 통솔하는 의병대장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서울진공이라는 대업을

앞두고 부친상을 당했다고 집으로 돌아갔으니 그게 무슨 사나이이고 애국자인가고 하면서 막 기염을 토하였다.

하지만 모두가 리린영을 비판만 한것은 아니였다. 개중에는 그를 두둔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부친상을 당한 사람이 집에 돌아가 상제의 구실을 하는거야 응당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고 하면서 그를 효자라고 추어올리기까지 하였다.

지금은 나라에도 충실하고 부모에게도 효성을 다하는 사람을 효자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는 부모들에게 효도를 다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효자라고 하였다.

나는 리린영의 행동은 참된 효자의 표본이 되지 못한다고 룬박하였다.

『나라와 가정을 다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라야 참다운 효자라고 할수 있다. 가정만을 중시하고 나라의 환난을 경시한다면 그런 사람을 어찌 효자라고 부를수 있겠는가. 이제는 우리도 효성에 대한 유교적 가치관을 바로잡을 때가 되었다. 리린영이 만일 자기 책임을 다하여 목적을 성취하고나서 부친의 묘소를 찾아 술이라도 붓고 분향재배하였다면 그의 이름은 후손들앞에서 더 빛을 냈을것이다.』

이것은 봉건도덕과 유교적 효성관이 끌수에까지 깊숙이 배겨있던 사람들의 낡은 사상에 대고던진 폭탄과 같은 선언이였다.

류길학우회 성원들은 두배로 갈라져 성주의 말은 참고할 가치가 있다느니 없다느니 하면서 치열한론전을 벌리였다.

지금 우리 사로청원들이나 소년단원들에게 있어서는 룬쟁할 여지조차 없는 단순명백한 문제이지만 그때로서는 어느것이 옳다거나 또 어느것이 그르다고 판정하기 어려운 상당히 까다로운 룬쟁거리였던것만은 사실이다. 나라와 가정을 다같이 사랑하는것이 진짜배기 효성이라는것을 온 나라 인민이 한 사람처럼 깨닫고 그것을 신념으로 받아들이기까지에는 실로 수십년의 역사가 필요

하였고 피눈물로 얼룩진 체험이 필요하였다.

쌀짐을 지고 토기점풀의 집으로 찾아갈 때 나는 새삼스럽게 리린영의 이 일화를 생각하였다. 어째서인지 그 창의대장의 행실이 옳은것 같은 생각도 들었다. 지난날 쓸개빠진 의병장이라고 입을 모아 비난하던 그 사람의 행위에서 내가 약간의 정의나마 발견하고 마음속으로나마 그를 동정하고 그에게 약간의 이해를 표시하게 된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였다.

사람이 혁명을 한다고 가정을 망각한다는것은 힘든 일이며 그것은 또 있을수도 없는 일이이다. 혁명도 인간을 위한것인데 혁명가들이 어떻게 가정을 무시하고 부모처자의 운명에 무심할수 있겠는가. 우리는 항상 가정의 행복과 나라의 운명을 하나의 맥락에서 보아왔다. 나라가 역경에 처하면 가정도 편안할수 없으며 가정에 그늘이 지면 동시에 나라의 표정도 어두워진다는것이 우리의 지론이였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때문에 우리는 한 전사의 가족을 구출하기 위해 적구에 한개 련대의 병력을 파견하는 전쟁사상 류례없는 조치도 서슴없이 취할수 있었다. 이것은 조선의 공산주의자들만이 지킬수 있는 의리이고 도덕이였다.

나도 초기에는 이 도덕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였다. 감옥에서 나와 동만땅으로 활동무대를 옮긴 다음에는 돈화와 안도를 중심으로 하여 여기저기를 왔다갔다 하면서 집에도 종종 들리고 어머니의 병에 도움이 될만 한 약재도 빤질나게 구해드리였다.

그런데 그것이 그만 어머니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다. 내가 집에 드나드는 회수가 잦아지게 되자 어머니는 어느날 나를 앉혀놓고 이렇게 태르는것이였다.

『네가 혁명을 하려거든 혁명에 전심하고 세간살이를 하려거든 세간살이에 전심하고 량자간에 어느 하나를 택하거라. 내 생각 같아서는 집에 철주도 있고 우리들끼리 벌어먹을수 있으니 너는 집근심일랑 하지 말고 혁명에만 전념하는

것이 좋겠다.』

나는 이런 말을 들은 다음부터 집으로 다니는 회수를 줄이였다.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직한 후에는 거의나 집에 드나들지 않았다.

나는 그것이 후회되었다. 어머니가 경계하더라도 나로서는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했어야 했을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아팠다. 가정에도 충실하고 나라에도 충실한다는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였다.

토기점풀이 가까와질수록 내 걸음은 어쩔수없이 빨라졌다. 그대신 마음은 각일각으로 무거워졌다. 중환에 계신 어머니의 모습을 뼈에 될 생각을 하니 기분이 산란해졌다.

물웅뎅이에는 갈대가 벌써 퍼그나 자라 바람에 흐느적이고 있었다. 갈이 많아서 이 고장을 갈밭마을이라고 했었는데 아래촌에 사는 김병일네가 몇해전부터 토기를 구워 팔면서부터 이 한적한 심심벽촌도 천지개벽을 하여 토기점풀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나는 통나무를 가로질려놓은 다리를 건너 웃마을로 올라갔다. 낯익은 초가가 어느새 내 눈에 비쳐들었다. 영성한 쌔리바자도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벼짚이영도 제때에 갈지를 않아 폐가와 같이 한산해보이는 집, 그것이 바로 몇해째 남정의 손이 닿아본적이 없는 우리 집이였다.

삽짜문을 열고 뜨락에 들어설듯말듯 하는데 방문이 급하게 벌떡 열리였다.

『어머니!』

나는 문설주에 기대앉아 웃고계시는 어머니앞으로 총총히 다가가며 소리쳐불렸다.

『글쎄 내 아무래도 발자국소리가 귀에 익다했지.』

어머니는 토방우에 벗어놓은 쌀자루의 멜빵을 만지며 반가와서 어쩔줄 몰라하였다. 집출입이 잦다고 꾸중을 하시면 어찌나 했는데 다행히도 그런 나무람은 없었다.

(다음호에 계속)

지난 조국해방전쟁(1950년 6월-1953년 7월)은 창건된지 2년밖에 안되는 청소한 공화국과 제국주의련합세력과의 대결이였다. 누구도 조선이 승리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가렬쳐절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조선인민은 전승의 기적을 창조하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 거둔 위대한 승리는 인민군 전사들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랑을 떠나서 론할수 없다.

일찌기 전쟁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무기와 전투기술기재가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사람이라는 주체적군사사상을 창시하신 그이께서는 전화의 나날 병사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하시고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며 전사들을 영웅적위훈으로 고무해주시였다.

조국인민은 1211고지전투가 얼마나 치렬하였는가를 누구나 잘 알고있다. 하루에도 수십차례씩 달려들며 들이대는 적들의 맹폭격, 포격으로 하여 고지의 높이마저 낮아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격전장의 전사들의 식생활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언제나 인민군전사들을 제일로 아끼고 사랑하신 그이께서는 어느날 1211고지에서 싸우고있는 부대의 지휘관을 전화로 찾으시였다.

먼저 전투원들의 건강에 대하여 료해하신 그이께서는 지휘관들은 전투가 가렬할수록 전투원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전투원 한사람한사람은 그 무엇파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 보배들이며 혁명전우들이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벌써 선기가 나는 것같은데 전투원들이 더운 밥과 따끈한 국을 먹도록 해주고 잠자리도 춥지 않게 해주어야 한다고 간곡히 이르시였다.

그후 전선에 남새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는것을 아신 그이께서는 콩을 보내주시여 전사들이 콩나물도 길러먹고 두부와 비지도 해먹도록 하시였다. 언제인가는 고지의 전사들을 위해 고등어도 보내주시며 그 보관대책과 료리방법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이뿐만이 아니였다.

주체40(1951)년 8월중순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군인들에게 공급할 겨울

## 전승을 안아온 사랑의 힘

다니시였다. 그 신발을 신으시고 산길도 걸으시고 진창길도 걸으시였다.

어느날 군인들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자신께서 며칠동안 이 솜신을 신어보았는데 뜨뜻하고 발이 편안해서 좋기는 한데 고무데두리가 낫어서 신발이 쉽게 젖어들어 발이 얼가봐 걱정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나서 그이께서는 고무데두리를 높이 댄 솜신을 만들어 병사들에게 공급하도록은 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전사들의 단잠을 위해 전선길에서 찬이슬을 맞으신 사연, 몸소 가꾸신 밤나무에서 만 밤을 전사들에게 보내주신 사실, 전화의 나날에 화선휴양소를 나오도록 하시고 적후에 있는 한 인민군 전사의 가족의 구출작전도 조직해주신 그이이시였다.

진정 위대한 수령님은 최고사령관이기 전에 병사들의 친어버이이시였고 그이의 사랑은 인민군 군인들이 발휘한 무비의 용감성과 영웅성의 원천이였다.

인민군장병들은 《김일성장군 만세!》를 높이 부르며 육탄이 되여 청춘의 피끓는 가슴으로 적의 화구를 막았고 팔다리가 부러지면 수류탄을 입에 물고 적진에 뛰여들어 원쑤들을 무리로 쓸어눕히며 조국의 촌토를 퍼로써 지켜냈다.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는 인민과 군대를 굳게 믿고 열렬히 사랑하는 최고사령관의 령도를 받을 때 반드시 기적적승리를 이룩한다는 진리를 력사에 아로새기였다.

본사기자 김지성

군복과 겨울모자, 솜신 등 시제품들을 몸소 보아주시였다. 그러시다가 전사들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하시며 군인들을 여러명 데려오도록 하시였다.

군인들이 도착하자 그이께서는 여기서 마음에 드는 군복들을 골라서 입어보라고 하시였다. 군인들은 곧 군복과 솜신발을 골라 착용하였다.

만족하신 시선으로 군인들을 둘러보신 그이께서는 새 군복의 실밥도 뜯어주시고 모자도 바로 씌워주시면서 새 겨울군복이 전사들의 마음에 드는지, 몸을 돌리기가 불편하지는 않은지, 춥지는 않겠는지 세심히 관심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그날 군인들과 헤여지시면서 새 솜신발 한켤레를 집으시였다. 다음날부터 그이께서는 그 솜신발을 신고

## 수 기

# 신념으로 온 길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기가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게 된다.

하물며 지난 세기 50년대초 조국의 운명을 관가리하는 조국해방전쟁에 참가하여 포화속을 뚫고온 나의 경우에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지금도 눈만 감으면 그날의 격전장이 눈에 안겨오고 폭탄과 포탄이 작렬하는 속에서도 부상병들을 담가에 눕히고 야전후송 임무를 수행하던 나날이 어제엔 듯 삼삼하다.

보병총과 원자탄의 대결이였다 고 말할수 있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은 매 인간들의 신념을 검증하는 마당이기도 하였다.

당시 서울적십자병원에서 간호원으로 근무하던 나는 인민군 대에 의해 서울이 해방되자 의용군에 입대하였다.

병원에서는 아군의 질풍같은 공격속도에 의해 전선이 락동강 계선으로 떨어지자 야전후송소를 전개하고 의용군간호원들을 전선후송대로 파견하였다.

전선에서 부상병들에 대한 후송임무를 수행하던 우리는

주체39(1950)년 9월 뜻밖에도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길에 오르게 되었다.

그때 의용군간호원은 15명정 도였다.

고향이 남조선인 우리들은 정든 고향을 두고 후퇴한다는 말에 마음속으로 동요의 물결이 일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신념의 불을 지핀것이 있었다.

그것은 인민군병사들에게서 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이께서는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찾아주시고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밭갈이하는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여해주시였으며 근로하는 인민의 아들딸들이 마음껏 공부하도록 평양에 김일성종합대학도 세워주시였다는것이였다.

근로하는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된 공화국의 꿈같은 이야기는 나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평양으로 가고싶은 충동을 금할수 없게 하였다.

그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주저없이 평양길에 오르게 하였다.

우리는 부피가 큰 의료기구들을 땅에 파묻고 약품들은 배낭에 넣어 메였으며 부상병들을 위해 담가를 더 만들어 후송의 길에 올랐다.

적구에서의 행군은 걸음마다 맞다드는 적들과의 조우전과 생명이 꺼져가는 중상자들에 대한 치료전투까지 벌려야 하는 위험하고 간고한 순간순간이였다. 게다가 굽주림과 추위까지 닥쳐 말그대로 엄혹한 난판이 겹겹이 막아나섰다.

그럴 때마다 지휘관인 군의는 어렵고 힘들어도 절대로 주저앉으면 안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계신다고 하면서 손에 생긴 물집을 터쳐 주고 봉대를 감아주며 힘과 용기를 주었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길은 우리를 겸증하고 신념을 굳하게 한 나날의 련속이였다.

우리의 후퇴길을 어떻게 알았는지 적들이 끈질기게 추격해왔다. 전투를 앞두고 한 부상병은 배낭에서 수류탄 두개를 꺼내들



고 나에게 한개를 주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위대한 수령님의 품으로 꼭 찾아가라고, 그 품에 참다운 삶과 미래가 있다고 하면서 수류탄을 안고 적진속에 몸을 던졌다.

이름도 모를 부상병이 남긴 마지막말은 위대한 수령님의 품을 찾아가는 길만이 고향으로 가는 길이며 그 길만이 승리의 길이라는것을 확신하게 하였다.

우리는 가다가 쓰러지면 죽어서도 그 품에 안기리라는 신념을 안고 후퇴의 길을 끗끗이 이어갔으며 마침내 최고사령부를 찾아갈수 있었다.

30여일간, 후퇴의 기간은 짧았지만 그 나날 우리는 신념의 강자들로 자라났다. 그 신념이 있어 우리는 침략자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나는 전후 그처럼 가고싶던 대학에도 가고 교수, 박사로 되여 삶을 빛내이였다. 지금은 전승세대로 불리우며 어디서나 존경을 받고 사회적으로 우대를 받고있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멀리 흘렀지만 전승세대의 그 신념과 정신은 오늘도 새세대들에게 굳건히 이어지고있다.

전쟁로병 교수 박사 김봉선



## 전화의 나날에 울려퍼진 신념의 노래

**혁명적락관주의는 전쟁승리에 대한 신념의 표출이며  
그것은 세계전쟁사가 알지 못하는 영웅신화를 놓았다**



이 땅에서 전쟁의 포화가 몇은  
지도 근 70년세월이 흘렀다.

흐르는 세월은 망각을 실어온  
다고 하지만 조국인민들은 전승  
세대의 위훈을 잊지 않고 있으며  
그들을 추억하고 있다.

보병총과 원자탄의 대결이라  
고 할수 있는 조국해방전쟁  
(1950년 6월-1953년 7월)시기  
인민군용사들은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화선악기를 들고  
용감하게 싸웠다.

인민군용사들은 전화의 가렬  
처절한 나날에도 락천적으로 생  
활하였다.

그들은 포연이 서린 전호가에

서 화선악기를 만들고 연주하면  
서 노래도 불렀고 춤도 추었다.

화선악기는 주체40(1951)년  
10월 전선동부를 사수하면 방  
위자들에 의하여 처음으로 만  
들어졌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1211고지에서 싸운 한 전쟁로  
병은 실화 《나의 화선악기》에  
서 제손으로 직접 첫 화선악기를  
만들 때의 심정을 이렇게 썼다.

『직동령에서의 중대오락회  
는 매일밤 노래로 막을 열고 노  
래로 막을 내리곤 하였다. 낮에  
는 원쑤를 치고 밤에는 승전가  
를 부르는 전우들의 기세는 날  
을 따라 더욱 고조되었다. 그  
럴수록 악기생각이 간절해졌다.  
우리에게 노래만으로는 부족하  
였다. 그러나 중대에는 하모니  
카 한개 없었다. 악기를 마련할  
방도란 오직 자체로 만드는 것뿐  
이였다.』

모든것이 불타버린 고지에는  
악기재료도 제작도구도 없는 형  
편이였으나 인민군용사들은 서  
로의 힘과 지혜를 모아 적들의  
포탄파편으로 손칼과 대폐날,  
끌을 만들고 나무와 전선줄을  
가공하여 악기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만든것이 가야금, 단소,  
통소를 비롯한 민족악기들과 바  
이올린, 첼로, 기타 등이였다.

이 악기들을 가지고 인민군용  
사들은 전투의 월참마다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승리의 신  
심을 가다듬었다.

춤, 독창, 합창, 무용, 합주  
등의 다채로운 종목들이 화선에  
서 펼쳐지며 하였는데 거기에는  
적에 대한 적개심과 인민군용사  
들의 소박성과 명랑성, 락천주  
의가 반영되어 있었다.

전쟁의 마지막해 2월 어느날  
한 중앙신문에는 이런 종군기가  
실리였다.

『…<음악연주의 밤>은 실로

다채롭다. 그 첫머리에 화선악  
대들이 등장한다. 오동나무를 커  
서 만들고 전화선과 명주실오리  
를 가공한 1번-4번선까지 음조  
가 정확한 바이올린, 첼로, 6번  
선까지의 기타, 통소와 퍼리 등  
화선악기의 합주는 화선에서뿐  
아니라 멀리 후방에서도 절찬을  
받고 있다.』

이 시기 세계전쟁사의 그 어  
느 갈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화선악기연주회, 예술공연도 진  
행되었다. 주체41(1952)년 2월  
평양에서 열린 조선인민군 각  
련합부대들의 예술공연대회에  
참가한 인민군용사들은 자기들  
이 만든 화선악기로 훨승의 신  
심과 혁명적락관에 넘쳐 싸우는  
조선의 기상을 격조높이 노래하  
였다.

이뿐이 아니다.

전쟁시기 인민군용사들의  
생활을 반영한 가요 《전호속의  
나의 노래》, 《내 고향의 정든  
집》, 《자동차운전사의 노래》  
를 비롯하여 많은 전시가요들  
이 창작되었으며 인민군용사들  
은 승리할 래일에 대한 드높은  
락관을 안고 싸우는 고지마다에  
서 이 노래들을 불렀다.

고지에서 울리는 노래는 적들  
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는 화선악기들의 일부

다면 어떻게 되여 인민군용  
사들이 총포성이 그칠새없는 불  
타는 고지와 전호가에서 자체로  
화선악기를 만들고 흥겨운 화선  
음악회를 펼칠수 있었겠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의 가슴마다  
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찾아주신 공화국을 다시는 침  
략자들에게 빼앗길수 없으며  
그이께서 계시면 우리는 기어이  
승리한다는 억센 신념이 암반처  
럼 자리잡고있었기때문이다.

그 신념은 이 땅에 전승을 안  
아왔다.

적들은 인민군대의 무장장비  
나 공화국의 청소한 력사는 계  
산할수 있었어도 이처럼 무궁무  
진한 정신적힘, 혁명적락관주의  
의 위력은 계산할수도 리해 할수  
도 없었으며 그로 하여 당시로  
서는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무  
장을 갖추고도 참패를 면할수  
없었던것이다.

지금도 이 땅의 무수한 산발  
들을 바라보느라면 전화의 그  
나날의 화선악기소리가 들려오  
는듯싶다.

전승세대가 지녔던 혁명적락  
관주의는 오늘도 련면히 이어지  
고있다.

본사기자 엄향식



## 더 많은 유리제품들을



대안친선유리공장은 조국의 유리생산에서 큰 뜻을 맡고 있는 공장이다.

최근년간 공장은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건설과 삼지연시꾸리기를 비롯하여 나라의 중요대 상건설에서 필요되는 각종 유리제품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함으로써 건축물들의 완공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였다.

지금 공장안의 일군들과 기술자, 노동자들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정신을 받들고 이미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각종 유리제품생산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김만형기사장은 《생산장성의 비결을 과학기술에서 찾은 우리는 자체의 과학기술력량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생산자대중

의 창조적적극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공장에서는 과학기술력량에 의거하여 원료, 자재의 국산화를 힘있게 추진하고있다.

기술자들은 수입에 의존하던 소결지르콘벽돌과 규석벽돌을 자체로 생산할수 있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고 판유리

용해로와 석로의 대보수를 성과적으로 결속하여 생산정상화의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그리고 석로전기가열기조종체계와 화상분식식 유리액면측정체계를 새롭게 확립하고 영구자석에 의한 철분제거기 등 제품의 질제고에 이바지하는 실용성있는 설비들을 창안제작하여 공장의 현존생산토대를 보다 강화하였다.

한편 공장에서는 모든 종업원들이 참가하는 대중적기술혁신운동도 힘있게 벌리고있다. 결과로 노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이 제고되고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이 창안도입되어 유리제품들의 기술적지표들이 부단히 개선되고있다.

더 많은 유리를 생산하여 중요대상건설장들에 보내주려는 이곳 생산자들의 열의와 창발

성에 의해 질좋은 유리들이 흐름선을 타고 쉬임없이 흘러나오고있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유리건구, 둔전기재창유리, 겹층유리들과 열선반사유리, 곡면유리, 흐린무늬유리, 그림장식유리 등 각종 유리제품들은 그 질이 높아 운수부문과 건설부문을 비롯한 여러 부문들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로익지배인은 《과학기술 생산의 일체화를 보다 완벽하게 실현하는것이 공장경영의 중요 목표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과학기술을 주되는 전략자산으로 틀어쥐고 각종 유리제품들의 생산을 계속 늘여나가겠다.》라고 말하였다.

글 본사기자 김지성  
사진 본사기자 김강무





## 제품의 다종화, 다양화를 확대

원료준비와 진공유화, 물처리, 혼합교반, 숙성, 주입, 포장 등 모든 생산공정들이 자동화된 공장에서 생산되는 여리가지 제품들은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



탈색방지, 생물분해효과, 놀라운 세척효과,  
머리칼영양효과, 피부보호작용 ...



풍치수려하고 물이 좋은 곳으로 유명한 통약산기슭에 자리잡은 통약산비누공장에서 인민들이 선호하는 각종 물비누와 세척제생산을 늘이고 있다.

6년전 조업당시 13종에 31가지 제품만 생산되던 이 공장에서는 지금 60여종에 220여 가지의 제품들이 다양생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적지 않은 제품들이 국가적인 명제품, 명상품으로 등록되었다.

이 모든 성과는 공장에서 통합생산체계와 엄격한 품질관리체계를 확립한데 기초하여 마련되었다고 할수 있다.

특히 공장에서는 제품사용자들속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을 종합하여 제품의 부족점을 찾아제때에 대책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속에서 부단히 그 질을 갱신한 옷물비누제품들은 탈색방지, 생물분해효과가 있으면서도 피부와 섬유의 손상이 없고 세척력 또한 비할

바없이 높은것으로 하여 사용자들속에서 좋은 평을 받고 있다.

공장에서는 제품의 질제고뿐만아니라 새 제품개발사업에도 힘을 넣어 제품의 다종화, 다양화를 적극 실현해나가고 있다.

공장에서는 기술자, 기능공들은 물론 공장안의 모든 종업원들도 기술혁신 및 창의고안발표회에 참가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 우수하게 평가된 착상안들을 생산에 널리 도입함으로써 기술혁신운동이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되었다.

기사장 로길찬을 비롯한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천연재료에 의한 미용효과와 치료작용 등을 세분화하여 샴푸와 린스를 다종다양하게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심화시켜나가고 있다. 그들은 개성고려인 삼, 쑥, 포도씨, 측백나무잎추출물을 비롯한 천연약재들의 합리적인 배합비률을 찾아내여 머

리칼손상회복효과, 머리칼영양효과, 피부보호작용이 있는 여러가지 기능성제품들을 연구개발하였다.

공장에서 생산하고있는 레몬향그릇세척제와 생강향그릇세척제, 냄새제거그릇세척제, 수유옷물비누, 생물분해옷물비누, 진때제거옷물비누, 탈색방지옷물비누 등은 적은 양으로 놀라운 세척효과를 나타내고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물소비량도 적은것으로 하여 국가우수제품(2월2일제품)으로 등록되었다.

지배인 김명성은 『우리 공장에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수행기간에 품질이 보다 좋은 물비누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할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모두가 분투하고있다.』라고 말하였다.

글 본사기자 연 사진 본사기자 입정국



# 일체식인공수정체 개발자들



기술협의회를 하고 있는 개발자들

6년전 나이지숙한 한 안파의 사가 국가과학원 기계공학연구소 공작기계연구실 연구사들에게 자그마한 꽉을 내놓았다.

꽉에는 현미경으로 보아서야 그 형체를 똑똑히 알수 있는 크기가 겨우 6mm정도 되는 볼록 렌즈모양의 투명체에 활동처럼 생긴 머리카락굵기만한 두개의 《다리》가 량쪽으로 나와있는 작은 물체가 들어있었다.

조영철실장은 《의사는 그것이 백내장환자의 눈에서 혼탁된 수정체를 떼내고 인공적으로 만들어 넣어주는 일체식인공수정체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일체식인공수정체생산 공정을 확립해줄것을 우리들에게 절절히 호소하였다.》라고

말하였다.

그때 연구사들은 누구나 선뜻 결심을 내리지 못하였다.

당시 일체식인공수정체는 정밀가공기술이 발전한 일부 나라들에서만 생산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술을 비밀에 불이면서 기술이전을 막기 위해 통제를 엄격히 하고 있었다.

그날 열린 연구소적인 과학평의회에서 공훈과학자이며 교수, 박사인 백천호부소장은 연구사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안파의 력사는 백내장치료의 력사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안파질병에서 백내장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질병치료는 인공수정체를 요구한다. 지난 시기 안파

분야에서는 인공수정체를 수입에 의존하였다. 결국 안파치료사업이 남에게 적지 않게 끊매여있다는것을 의미한다. 나는 인민들이 느끼는 아픔을 누구보다도 깊이 절감할줄 아는것이 바로 우리 과학자들의 본래라고 생각한다.》

그의 말은 20대 실장의 심장을 세차게 두드려주었다. 곧 연구조사가 무어졌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연구사업이 시작되었다.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자료들이 그들을 락심하게 할 때가 한두번이 아니였다.

그러나 하나의 지향을 안고 달리는 그들의 마음을 돌려세울수 없었다.

차츰 일체식인공수정체생산 공정이라는 첨단의 세계가 연구사들앞에 자기의 모습을 하나하나 드러내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소재따내기반, 정밀복합 가공반, 광마반에 대한 설계가 40일만에 끝나게 되였다.

여기에서 신심을 얻은 연구사들은 높은 정밀도를 요구하는 수많은 부분품들의 가공과 설비제작에 진입하였다. 이 과정에 백칠훈연구사를 비롯한 연구사들에 의해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던 절삭공구가 개발되었으며 발전된 나라의 독점물로 공식 인정되었던 광마재료의 기술비결이 리희명연구사의 고심어린 노력에 의해 완전히 밝혀져 이들의 연구에서는 또 하나의 큰 문제가 해결되게 되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인공수정체생산에서 첫 공정인 소재따내기에서 나타나던 비정상적인 현상도 연구사들의 집체적지혜에 의해 완전

히 해결되었다.

령이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세계적인 첨단기술에 도전해나선 과학자들의 노력은 1년만에 인공수정체생산설비들에 대한 시운전에 이어졌고 시제품을 내놓게 되였다.

류경안파종합병원 1부원장은 《렌즈와 다리부분이 형태적으로 정교하게 가공된 일체식인공수정체를 보면서 우리들은 감탄하지 않을수 없었다.》라고 말하였다.

그후 연구사들은 더욱 박차를 가하여 정밀복합가공반의 가공정밀도를 높이는데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를 해결하였으며 인공수정체가공에 리용되는 각종 지구들의 제작완성에서 큰 진전을 이룩하였다.

광명을 되찾았다.  
환자의 눈에 처음으로 이식한 때로부터 두달동안에 진행된 수백명의 백내장환자들에 대한 이식수술에서는 이들이 연구한 일체식인공수정체의 우월성이 뚜렷이 확증되었으며 지난해 말까지 수많은 백내장환자들이

주체110(2021)년 4월 일체식인공수정체생산공정을 확립한 연구사들에게 조국의 최고 과학기술상인 2. 16과학기술상이 수여되었다.

글 본사기자 김지성  
사진 본사기자 리 칠



류경안파종합병원에서

# 정성 이 명약

평양시 락랑구역에 있는 보건성 치과종합병원 악안면외과는 턱뼈골절 및 골수염, 선천성 기형, 얼굴신경질병을 비롯하여 얼굴과 입안에 생기는 각종 질병을 치료하는 곳이다.

최근 이곳에서는 CAD-CAM에 의한 판절 및 뼈재건성형술을 이용하여 환자치료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시기에 《컴퓨터3차원 설계에 의한 측두하악판절 및 하악골재건성형술》을 비롯한 난도높은 기술들을 연구도입하여 풍부한 치료경험을 쌓은 이

곳 의사들은 컴퓨터3D인쇄기로 각종 얼굴부위의 병상태에 따른 인공관절 및 뼈를 제작하여 환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다.

이곳에서 치료를 받은 평양시 만경대구역 금성3동 89인민반의 서경정(19살)은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오래전에 심한 골수염으로 얼굴부위의 한 판절을 절제하다보니 턱이 한쪽으로 기울어 말하는 것은 물론 음식도 제대로 먹을 수 없었다.

팔과 다리의 허물은 옷으로 가리울 수 있지만 얼굴형태의 변형

은 숨길 수 없어 바깥출입조차 못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남들과 꼭같이 노래도 부르고 있다.』

이 과에 대한 호평은 많은 사람들 속에서 들을 수 있다.

입천장의 파열로 입원하였던 사리원초등학원 학생 주영실은 정성을 다하여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준 윤혁철, 김철민을 비롯한 이곳 의사들에 대한 고마움을 거듭 표시하였다. 그러면서 퇴원할 때에는 갖가지 생활필수품을 한가득 안겨주며 멀리까지 따라나와 바래워주고 퇴원후에는 건강상태를 자주 물어보는 의사, 간호원들이 마치 친혈육처럼 느껴진다고 말하였다.

평양시 통성구역 통성2동에서 사는 박정실로인은 두달전 골수염 등의 합병으로 이곳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해외에서 이런 치료를 받자면 수만US\$는 있어야 한다고, 나라의 무상치료혜택과 보건일군들의 정성앞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토로하였다.

환자들로부터 진정어린 고마움의 인사를 받고 있는 이곳 의사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의술+정성=명약》이라는 공식이 새겨져 있다.

과장 김영혁은 모임때마다 얼굴에 생기는 각종 질병들은 뇌수와 가까운 곳에 있어 치료에서 시간을 놓치면 생명에 위험을 주게 되며 잘못 치료하면 일생 허물이 남아 그늘속에서



수술전

수술후

부위별 병상태에 따른 치료방법을 토의하고 있다.



살게 된다, 치료에서 어머니의 심정으로 정성을 발휘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나라에서 무상으로 배워준 지식과 의술을 응당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발휘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난해 과에서는 학계의 관심을 끄는 여러건의 논문들을 발표하였고 도서 《악안면외상학》을 집필하였으며 각이한 병

증세의 구급, 중환자들을 완쾌 시켰다.

글 본사기자 최기철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 상식

### 건강에 유익한 손톱주무르기

손톱을 힘껏 주무르면 몸상태를 좋게 할 수 있다고 한다.

례를 들면 밤늦도록 잠들지 못하거나 랭병이 있는 사람, 어깨가 뻐근해하는 사람들이 효력을 볼 수 있다.

손톱언저리에는 신경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을 눌러주면 차를신경을 바로잡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차를신경의 균형이 잘 맞으면 피줄이 유연성을 되찾아 피흐름이 좋아지고 그 영향으로 면역력이 높아지

는 등 몸상태가 좋아진다고 한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매 손가락의 첫번째 판절의 웃가녁을 아픔을 느낄 정도로 3초동안 순서대로 주무른다.

이런 방법으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와 저녁 잠자기 전 하루 2~3번정도 하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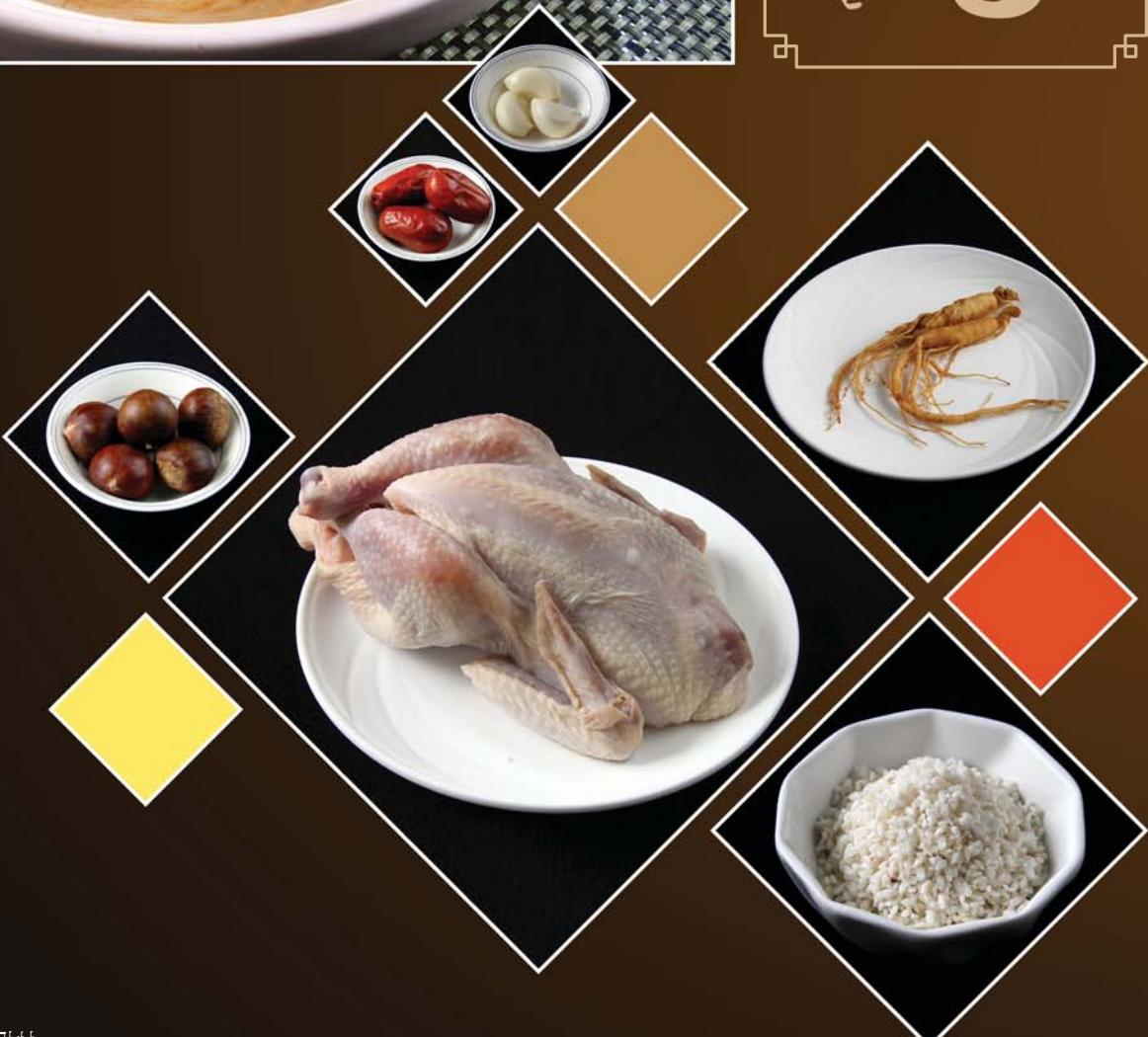
\* \* \*



민족의 향기

# 삼계탕

## 『효성탕』으로 불리운



동포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이번호에 일명 《효  
성탕》이라고 불리운 삼계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되여 삼계탕이 《효  
성탕》이라고도 불리우게 되였  
는지 그에 대한 전설이 오늘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 옛날 어느한 마을에 부모  
에게 효성이 지극한 어린 자식  
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오래동안 몸  
저누워있었는데 자식이 온갖 정  
성을 기울여 간호하였지만 도  
저히 몸이 추서지 못했습니다.

어느날 한 용한 의원이 찾아  
와 어머니에게 닭파 삼을 함께  
끓여 대접하면 꼭 차도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말이 쉽지 깊은 산속에서 자  
라는 삼을 찾기란 조련치 않았  
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오랜 병  
환으로 몸이 쇠약해진 어머니  
를 꼭 제 손으로 일으켜세우리  
라 결심하고 깊은 산에서 며칠  
동안 헤매며 간난신고끝에 보  
기드물게 큰 산삼 한뿌리를 찾  
아냈습니다. 그후 어머니는 아  
들의 효성이 깃든 삼계탕을 먹  
고 씻은듯이 병을 털어버리였  
습니다.

그때로부터 삼계탕은 자식의  
지극한 효성이 깃든 탕이라고  
하여 《효성탕》이라고도 불리  
웠습니다.

삼계탕은 원기회복과 질병치

료에 효과가 높은 고려약재인  
인삼이 많이 재배되면서부터 일  
상적으로 몸이 허약할 때와 건  
강회복때 치료음식으로 써왔습  
니다.

이런 보양음식 삼계탕을 전  
문으로 만들어 봉사하는 식당  
이 바로 평양의 통일거리에 있  
습니다.

삼계탕식당으로는 사시장철  
단골손님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습니다.

책임자 리은경의 말에 의하  
면 사계절중 삼복철에는 손님들  
이 너무 많아 예약손님들만 접  
수할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식당에서는 600~  
800g정도 되는 햅닭의 배속에  
3~4년생의 개성고려인삼 한뿌  
리와 100g의 불군 찹쌀, 대추  
3알, 밤 3알, 마늘 3쪽을 넣고  
중탕(끓는 물속에 음식담은 그  
릇을 넣어 익히거나 데우는것.)  
하여 음식을 만들고있습니다.  
고압가마에 넣은 음식감이 끓기  
시작해서부터 20~25분이면 고  
기와 찹쌀이 충분히 익습니다.

뜨겁게 달군 돌그릇에 닭이  
들어앉은 삼계탕은 보기만 해  
도 군침이 돋니다. 닭의 배안을  
헤쳐보면 그안에는 먹음직스러  
운 대추와 마늘이 박혀진 찹쌀  
밥이 인삼향기를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기름기가 찰찰 도는 찹쌀밥  
과 맑은 국물을 떠먹은 후 닭

고기의 뼈를 추리며 연한 살을  
씹는 맛 또한 어디에 비길수 없  
습니다.

삼복철에 이곳을 찾는 손님  
들은 삼계탕을 3일 건너 한번  
씩 3번 먹으면 심한 더위로 하  
여 소모되는 영양물질을 보충하  
고 건강을 유지할수 있다고 말  
하고있습니다.

삼계탕이 원기회복과 질병치  
료에 으뜸가는 보양음식으로 꿔  
힐수 있게 된 이유가 바로 인삼  
의 약효때문입니다. 뿐만아니  
라 쇠약해진 육체가 충분히 소  
화흡수될수 있게 어린 닭파 찹  
쌀 등을 재료로 쓰는것으로 하  
여 약리적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삼계탕은 중로년기사람들에  
게 더욱 좋으며 늘 먹어도 몸에  
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계탕은 몸이 허약  
한 사람은 튼튼해지게 하며 병  
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주는것  
으로 하여 부모에게 효성을 다  
하고싶어하는 자식들이 제일먼  
저 눈길을 돌리는 보양음식으  
로 손꼽히고있어 《효성탕》이  
라고 부르고있는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년로하신 부  
모님들을 위해 효성의 마음담아  
삼계탕을 마련하여보십시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리광성

# 태권도사현부부

태권도를 보급하고 전파하는 데서 우리 부부는 태권도 모국의 한 성원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언제나 함께 있을 것이다.



주체 96(2007)년에 진행된 태권도 유럽 선수권 대회는 벨라루씨에 있어서 매우 의의 깊은 대회였다. 한 것은 이 대회에서 벨라루씨의 안드레이 야르물라선수가 45kg급 남자 개인 맞서기에서 1등을 쟁취함으로써 벨라루씨 태권도 선수로서 첫 금메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벨라루씨의 태권도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3년 후에 진행된 제 10차 태권도 세계 청소년 및 장년 선수권 대회를 비롯한 여러 세계 선수권 대회와 유럽 선수권 대회에서 많은 선수들이 금메달들을 획득하였다.

벨라루씨 체육성도 놀라움을 표시한 이 성과 속에는 조선 태권도 위원회 태권도 사범단 사범 김영빈과 국제 태권도 련맹 A급 국제 심판원 조예향의 노력이 깃들어 있다.

태권도 사현들인 이들은 부부 간이다.

홍안의 시절부터 조선민족의 정통 무도인 태권도를 빛내일 애국의 마음으로 인연을 맺고 사랑을 약속한 이들은 국제 무대들에서 자기들의 실력을 남김 없이 과시하였다.

높이 차기에서 특기를 가진 안해인 조예향은 제 7차, 제 8차, 제 9차 태권도 세계 선수권 대회들에 참가하여 단체 경기, 개인 특기 등 여러 종목에서 1등을 쟁취함으로써 주체 81(1992)년 공훈체육인의 칭호를 수여 받았다.



김영빈 사현이 이끈 벨라루씨 국가 종합팀은 제 27차 성인 태권도 유럽 선수권 대회를 비롯하여 여러 국제 경기들에서 1등을 하였다.

남편인 김영빈은 주체 83(1994)년부터 주체 92(2003)년까지 국제 태권도 련맹 시범 단 성원으로 활동하면서 로씨야, 우크라이나, 도이췰란드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을 순회하며 태권도를 널리 보급하는데 기여하였다.

몸이 유연하고 발차기가 좋은 그는 수련의 나날 늘 안해인 조예향을 적극 뒤받침해주었다.

그들은 주체 86(1997)년로 씨야에서 진행된 제 1차 에르마르컵 대회를 비롯하여 여러 대회들에서 호신술 모범 출연으로 관중

들의 절찬을 받았다. 조예향은 360° 돌려 차기를 비롯하여 난도 높은 동작들을 펼쳐보임으로써 누구나 엄지 손가락을 펼쳐들게 하였다.

주체 88(1999)년에 가정을 이룬 후에도 태권도에 대한 이들의 사랑은 변함 없었다. 이들은 다같이 높은 단수를 소유하였으며 조예향은 국제 심판원으로 되었다.

이들 부부는 세계적으로 급속히 파급되며 인기가 높아가고 있는 조선의 정통 무도인 태권도의 보급을 위해 주체 94(2005)년부터 주체 108(2019)년까지 벨라루씨에서 사범으로 활동하며 연무선을 그어나갔다.



조예향 사현은 국제 태권도 련맹 A급 국제 심판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태권도를 보급하면서 그들이 관심을 돌린것은 수련생들이 태권도의 우수성을 스스로 깨닫도록 하는것과 함께 정신도덕적수양을 쌓도록 하는것이였다.

그러나 각이한 무도류파들이 많은것으로 하여 모든 일이 얼음에 박힐듯 진행된것은 아니였다.

그럴수록 김영빈사현은 안해와 힘을 합쳐나가며 수련생들이 정신적으로 수양되면서도 난도높은 태권도기술을 련마해나가도록 세심히 이끌어주었다.

시간이 갈수록 태권도에 대한 인기는 높아갔고 하루가 다르게 수련생들은 점점 늘어났으며 장애자들도 도장의 문턱



벨라루씨에서 태권도를 보급하고있는 김영빈사현



제8차 태권도세계청소년 및 로장선수권대회에서



제21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에서 심판을 하고있는 조예향사현(원쪽으로부터 두번째)

을 넘어섰다.

김영빈사현은 벨라루씨태권도협회를 조직하였으며 그 나라에서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를 비롯하여 큰 규모의 대회들을 6차례나 주최하도록 하는데서도 주도적역할을 하였다.

벨라루씨에서 태권도바람이 불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태권도는 그 나라 사람들이 이들부부를 잊지 못해 하들의 생활에 깊이 자리잡게 되였다.

하여 그 나라 체육성에서는 태권도를 승산종목으로 정하게

되었다.

오늘 벨라루씨의 많은 사람들이 이들부부를 잊지 못해 하며 추억하고있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 상식

### 태권도단과 기술급수에 따른 띠의 종류, 칭호

단	띠의 종류	칭호	기술급수	띠의 종류	칭호
9단	검은색띠	사성	1급	붉은색띠에 검은색선	훈련생
8단	검은색띠	사현	2급	붉은색띠	〃
7단	검은색띠	〃	3급	푸른색띠에 붉은색선	〃
6단	검은색띠	사범	4급	푸른색띠	〃
5단	검은색띠	〃	5급	풀색띠에 푸른색선	〃
4단	검은색띠	〃	6급	풀색띠	〃
3단	검은색띠	부사범	7급	노란색띠에 풀색선	〃
2단	검은색띠	〃	8급	노란색띠	〃
1단	검은색띠	〃	9급	흰색띠에 노란색선	〃
			10급	흰색띠	〃

#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25차 전체대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10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80돐이 되는 올해를 주체위업발전의 일대 분수령으로 빛내여나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25차 전체대회가 5월 28일과 29일 일본 도쿄에 있는 조선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다.

대회에는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박구호 제1부 의장 겸 조직국장, 남승우, 배진구, 조일연, 송근학, 강추련부의장들, 총련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총련중앙고문들과 재일조선인력사연구소 소장, 총련본부위원회들, 중앙단체, 사업체의 책임일군들, 중앙감사위원회들, 총련의 각급 기관, 단체, 사업체들에서 선출된 대의원들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25차 전체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서한 《각계각층 동포군중의 무궁한 힘으로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를 남승우부의장이朗독하였다.

서한朗독이 끝나자 전체 참가들은 조국사수, 인민보위의 방역대전을 진두에서 령도하시는 그토록 분망하신 속에서도 친히

강령적서한을 보내주시여 재일조선인운동의 전면적발전과 총련부흥의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 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하해같은 은총에 북받쳐오르는 격정을 금치 못해하면서 우렁찬 박수를 터쳐올리였다.

대회에서는 자격심사보고가 있은 다음 대회의안으로 《총련 제25차 전체대회에 제출하는 총련중앙위원회의 사업보고에 대하여》, 《재정결산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련중앙기관의 역원선거에 대하여》를 채택하였다.

대회에서는 박구호 제1부의장 겸 조직국장이 총련 제25차 전체대회 보고 《재일조선인운동의 전면적발전을 위하여,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힘있게 열어나가기 위하여 총매진하자》를 하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인민보위의 방역대전을 진두에서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천금같이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본대회 참가자들에게 강령적서한을 보내주시는 각별한 정치적신임과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였다고 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력사적서한은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이 자체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단계를 벗어나 전면적발전기,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더 힘차게 열어나갈데 대한 총적방향과 투쟁파업, 그 수행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준 주체적애족애국운동의 백파전서적인 총서이며 조국과 더불어 총련의 영원한 승리를 확고히 담보해주는 불멸의 기치이라고 하면서 뜻깊은 자리를 빌

어 전체 대의원들과 총련일군들, 재일동포들의 다함없는 충성의 한마음을 담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그는 총련 제25차 전체대회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체위업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때로부터 지난 10년간에 이룩하신 불멸의 령도업적을 총





사진전시회와 음악무용종합공연이 진행되었다.



련사업에 보다 철저히 구현하여 위대한 김정은시대 재일조선인 운동의 전면적발전을 위하여 큰 걸음을 내짚고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열어나갈것을 내외에 선언하는 대회라는데 그력사적위치가 있다고 하였다.

보고에서 보고자는 총련제24기 사업의 총화에 대하여, 위대한 김정은시대 재일조선인 운동의 전면적발전을 위하여, 제25기 총련사업의 주력과업에 대하여, 총련일군들의 조직사상생활을 강화하고 사업능력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일데 대하여 밝히였다.

보고자는 총화기간 총련을 공화국의 존엄높은 주체적해외교포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는 데서 귀중한 전진을 이루하였으며 재일동포들의 행복과 후대들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한 사업에 총력을 다한데 대해서

와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부강번영, 대외활동의 3대애국파업 수행에서 전진을 이루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리고 오늘 우리 조국이 자존, 자립으로 부강발전하는 사회주의강국에로의 새로운 경지를 힘있게 열어나가고 있는데 대해,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 따라 조국과 발걸음을 같이하며 재일조선인운동의 전면적발전을 위하여,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힘있게 열어나가기 위하여 총매진 할것이라는 대하여 밝히였다.

또한 선전교양사업에서 형식주의를 근절하고 사상의 위력으로 애족애국운동을 힘있게 추동해나갈데 대한 문제, 각급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한층 제고하고 동포들이 사는 모든 곳에 기층조직을 빠짐없이 꾸릴데 대한 문제, 새세대 동

포청년들을 총련의 대를 이어나갈 믿음직한 계승자, 교대자들로 키우는데 큰 힘을 넣을데 대한 문제, 동포제일주의를 철저히 관철하여 동포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그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봉사활동을 전 조직적으로 힘있게 벌릴데 대한 문제, 민족교육을 강화발전시키고 재일동포들속에서 민족성을 교수하기 위한 사업에 총력을 기울일데 대한 문제, 조국의 통일과 사회주의강국건설에 특색있게 기여하며 대외사업을 활발히 벌릴데 대한 문제들을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총련이 조직내부사업에 계속 선차적인 힘을 넣을 것과 총련일군들이 동포들의 정신력과 애국적열의를 불러일으키는 조직자, 선전자로서의 역할을 다할데 대해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대의원들이 희세의

천 출 위 인 이 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기에 주체위업과 총련애국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철석의 신념을 가슴깊이 새기고 력사적서한을 필승의 보검으로 억세게 틀어쥐고 대오의 일심단결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며 동포들의 행복과 후대들의 미래를 위하여 맡은 단위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일으켜나갈것을 호소하였다.

보고가 끝난 후 첫째 의안에 대한 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총화기간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본부의 조직지도력과 지부의 활동력을 크게 높이며 기총조직들을 반석같이 다짐으로써 새세대

를 비롯한 광범한 동포들을 묶어세운 사업성과와 경험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총련 제25차 전체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강령적서한을 높이 받들고 광범한 동포군중의 무궁한 힘으로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승리적으로 열어나갈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대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성과 교육위원회,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중앙위원회를 비롯하여 조국의 각 기관, 단체들과 일군들 그리고 해외교포단체들, 일본의 각 단체 및 개별인사들, 해외의 친선단체들, 남조선의 각계인사들이 보내온 축전들과 축하인사록화면집물이 소개되었으며 일본의 정당, 사회단체, 현대성 및 친선단체 인사들이 축하발언을 하였다.

재일조선청소년학생대표들이 대회장에 입장하여 총련 제25차 전체대회를 열렬히 축하하였다.

미명유 총련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이 감사위원회 사업보고를 하였다.

대회에서는 둘째 의안과 셋째의안에 따라 재정결산 및 예산안심의위원회, 총련중앙역원전형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대회에서는 총련 제25차 전체대회 보고를 대회결정으로 채택하였다.

대회에서는 둘째 의안인 재정결산 및 예산안심의위원회 보고가 있었으며 심의결과가 전원

일치로 채택되었다.

대회에서는 허종만동지를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으로 선거하였다.

또한 제1부의장, 부의장, 사무총국장, 총련중앙위원회 위원과 중앙감사위원회 위원들을 선거하였다.

허종만의장이 폐회사를 하였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께 삼가 드리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 속에 채택되었다.

대회가 끝난 다음 총련중앙위원회 제25기 제1차회의에서 총련중앙상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총련중앙감사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였다.

대회기간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과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위하여 출달음치는 공화국의 벽찬현실, 위대한 김정은시대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총련의 각급 기관과 재일동포들의 투쟁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전시회가 진행되었다.

또한 음악무용종합공연 『위대한 태양의 품속에 빛나는 총련』과 총련의 민족교육사업 발전에서 이루어진 성과들을 보여주는 전시회가 있었다.

\* \* \*

# 애국의 뜻은 대를 이어



오까야마조선초중급학교를  
돌아보는 리진규  
(1980년대 촬영)

주체53(1964)년 20대 초엽의 리선혜는 아버지의 배웅을 받으며 귀국선에 올랐다.

《이 아버진 네 결심을 지지한다. 조국에서 배움의 나래를 활짝 펴거라.》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옆에 데리고 있고 싶었지만 아버지 리진규는 딸이 대학갈 나이가 되자 혼연히 조국으로 떠밀어 보내였다.

어릴 때부터 특별히 외국어에 소질을 가지고 있던 선혜는 조선고급학교를 마치고 도꾜대학 입학 시험을 쳤으나 조선사람이라는 단 한가지 리유로락선되고 말았다.

더우기 그의 가족은 아버지가 당시 조선대학 교학장이었던 것으로 하여 일본당국으로부터 심한 박해와 로골적인 감시를 받고 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 재일동포들의 귀국실현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온 일본땅을 뒤흔들었다.

그 소식은 향학열에 불타던 선혜의 마음을 크나큰 희망과 포부로 부풀게 하였고 조국에 가서 마음껏 공부해 볼 용단을 내리게 하였다.

그의 결심은 곧 아버지 리진규의 뜻이기도 하였다.

리진규는 지난날 조국이 없었던 탓에 홍안의 시절 이국땅에서 고학을 하며 나라잃은 민족의 설

음과 고통을 뼈에 사무치게 절감하였다.

조국해방의 기쁨을 안고 이국땅에서 민족교육 사업에 몸을 담그었지만 첫걸음부터 일본당국의 탄압과 박해로 난관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당시 재일조선교원동맹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던 아버지는 주체37(1948)년 10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재일조선인경축단의 한 성원으로 조국을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만나뵙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조국을 방문하고 딸의 가족과 함께  
[주체81(1992)년 촬영]

이 날 그이께서는 해방후 재일본조선인련맹과 애국적인 활동가들이 동포거주지역들에 조선어 강습소를 내오고 우리 말과 글로 조선아동들을 교육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리진규를 비롯한 동포교육자들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민족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그토록 강조하시는 그이의 교시는 리진규로 하여금 해외조선교육자로서의 남다른 궁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하였으며 그때부터 그는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교육발전에 자기의 모든 힘을 다 바쳐갔다.

이 나날 그는 사람은 지식이 있고 뜻이 있어도 위대한領導자가 이끄는 참다운 조국이 없이는 자기 운명도 민족의 앞날도 개척할수 없다는 것을 귀중한 진리로 새겨안았다.

리진규는 딸이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조국에서 자기의 희망과 포부를 마음껏 이루게 하고싶었다.

아버지의 뜻을 안고 선혜는 귀국하여 지망대로 평양외국어대학에 입학하였다.

조국에서는 일본에 가족을 두고 혼자 귀국한 자녀들을 위해 생활조건을 갖춘 기숙사를 따로 꾸려주었다.

공부를 시작한지 얼마 안있어 선혜는 뜻밖에도 기숙사를 찾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게 되였다.

이 날 귀국한 자녀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그이께서는 그들에게 언제 귀국했으며 부모들은 무슨 일을 하는가, 생활에서 불편한 점은 없는가를 따뜻이 물어주시였다. 아무래도 친부모술하만 하겠는가고 걱정하시면서 그이께서는 무엇이나 곤난한것이 있으면 자신께 편지를 하라고, 이국땅에서 고생하는 아버지, 어머니께 걱정을 끼쳐서는 안된다고 친아버지의 정을 기울여주시였다.

학습과 생활을 잘해서 모두 좋은 일군으로, 민족간부로 되어야 한다고 하신 그이의 당부는 선혜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되었다.

선혜는 그 당부를 지켜 대학기간 공부를 열심히 하였으며 졸업후에는 사회주의건설장들에 자원진출하여 평양체육관, 인민문화궁전, 조선혁명박물관 등 기념비적건축물들을 일떠세우는 사업에 청춘의 자서전을 새겨갔다.

이 나날에 그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원의 영

예를 지니였으며 나라의 중요기관에서 중임을 맡아 책임을 다해나갔다.

1970년대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을 거쳐 1980년대에는 제1부의장으로 사업한 아버지의 건강을 늘 염려해주시던 위대한領導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느해인가 조국에 사는 외동딸이 30년간 한번도 일본에 있는 친정집에 가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아시고는 빨리 딸을 손자와 같이 일본에 보내여 아버지, 어머니곁에 있으면서 식사도 해드리고 이야기도 나누게 하라고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주체83(1994)년 아버지와 딸을 만나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리선혜가 오랜 기간 허리병으로 고생한다는것을 아시고는 외국에 가서 치료받도록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그후에도 리진규와 그의 가족에게 베풀어지는 사랑은 끝이 없었다.

80살을 가까이하는 리선혜는 흘러온 지난날을 자주 돌이켜보며 자식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곤 한다.

『너희들이 우리 가족이 받아안은 사랑을 언제나 잊지 말고 조국의 통성번영을 위한 길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나가길 바란다.』

조국으로부터 《총련의 원로이고 견결한 로혁명가, 주체형의 애국충신, 참다운 조국의 아들》이라는 최상의 평가를 받은 리진규의 애국의 뜻은 오늘 그의 후손들에 의해 이어지고 있다.

글 본사기자 김성경  
사진 본사기자 리영철



활아버지에 대하여 손자들에게  
이야기해주는 리선혜



# 민족의 재사 홍기문

해방[주체34(1945)년 8월 15일]전

조선일보사 기자,

주체38(1949)년-주체52(1963)년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주체52(1963)년-주체81(1992)년

사회과학원 부원장으로 사업.

주체62(1973)년 김일성훈장,

주체70(1981)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령영웅,

주체79(1990)년 조국통일상을 받은것을 비

롯하여 많은 훈장과 메달을 수여받음.

홍기문 선생은 《조선봉건왕조실록》과 《활만대장경》을 비롯한 민족고전번역출판에서 특출한 공헌을 세운 재능있는 학자이며 조국의 대외적 권위를 높이기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한 사회정치활동가였다.

그는 1903년 9월에 문필가의 가정에서 5형제의 맏이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배움에 대한 열망이 남달리 컸던 그였지만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일제의 가혹한 억압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교에 갈수가 없었다.

그는 자습으로 한학 특히 리문을 습득하였고 조선의 말과 글, 역사학을 독학하였다. 이 과정에 민족어의 우수성과 그것을 창조한 선조들의 뛰어난 재능에 대하여 잘 알게 된 그는 언어학 연구에 한생을 바칠 결심을 품게 되었다. 생활고로 낮에는 품팔이를 하고 밤에는 자습을 하다니 차례지는 잠시간은 하루에 두시간도 안 되었지만 그는 일제의 민족어말살정책에 대한 반발심을 더욱 굳히며 조선어학에 대한 탐구를 꾸준히 하였다.

처음으로 론문 《리두연구》를 발표한 그는 조선민족의 역사를 소개하는 《조선역사》라는 글을 신문들에 련재하였다. 그러나 당시 일제의 악랄한 책동으로 그의 언어학연구는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선생이 비로소 언어학연구에 전심할수 있게 된 것은 아버지 홍명희 선생의 뒤를 따라 주체37(1948)년 5월 공화국의 품에 안긴 때부터였다.

김일성종합대학 교원으로 사업하는 기간에만 도 그는 《정음발달사》, 《향가해석》, 《조선어사연구》 등 가치있는 론문들을 발표하였으며 《대동야승》(1권)을 비롯한 여러권의 민족고전도서들을 번역하였다.

그는 늘 학생들에게 『학업의 주인은 자신이다. 스승을 통가하는 제자가 되라.』고 말하였으며 자신부터가 꾸준히 학습하면서 실력을 높여나갔다.

언어학자로서의 그의 재능은 그후 사회과학원에서 사업하게 되면서 뚜렷이 드러나게 되었다.

특히 《조선봉건왕조실록》의 번역사업에서 그는 특출한 공헌을 하였다.

1 763권에 달하는 《조선봉건왕조실록》을 번역한다는 것은 일흔을 넘긴 그에게 있어서 결



국제의회동맹 제61차총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일본에 도착한 홍기문(가운데)

코 쉬운 일이 아니였지만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특별한 관심 속에 발기되어 진행하는 번역사업의 기일을 10여년으로 계획하였다.

국가적인 조치에 따라 전국적으로 전문가들이 모집되고 젊고 실력있는 지식인들을 망라하는 번역집단이 꾸려졌다.

홍기문 선생은 글자 하나, 문장 하나라도 덜거나 보탬이 없이 철저히 원문그대로 번역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였으며 수많은 고전들과 역사 문헌들을 탐독하고 연구하면서 그 사료적 가치를 담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러 차례 번역사업 정형을 료해하시며 번역집단에 온갖 사업조건, 생활 조건을 보장해주도록 하시고 홍기문 선생의 건강이 념려되시여 보약도 보내주시는 은정깊은 사랑을 베푸시였다.

하나를 주면 둘, 셋을 더 주고 싶어하는 친부모의 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관심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그는 연구자들과 함께 낮과 밤이 따로없이 긴장한 전투를 벌려 25~30년은 살피 걸린다던 방대한 규모의 역사책 번역을 10년 남짓한 기간에 성과적으로 결속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제자들을 키워가지고 《조선봉건왕조실록》을 번역한 것은 간단한 일 아니라고, 우리 나라에서 《조선봉건왕조실

록》을 번역 할수 있는 사람은 홍기문동무밖에 없다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지혜가 모자랄 때는 지혜를, 힘이 모자랄 때는 힘을 안겨주시면서 끊임없이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은정과 사랑이 있어 홍기문 선생은 고령의 몸이지만 로당의 장하여 《활만대장경》의 번역사업에서도 큰 역할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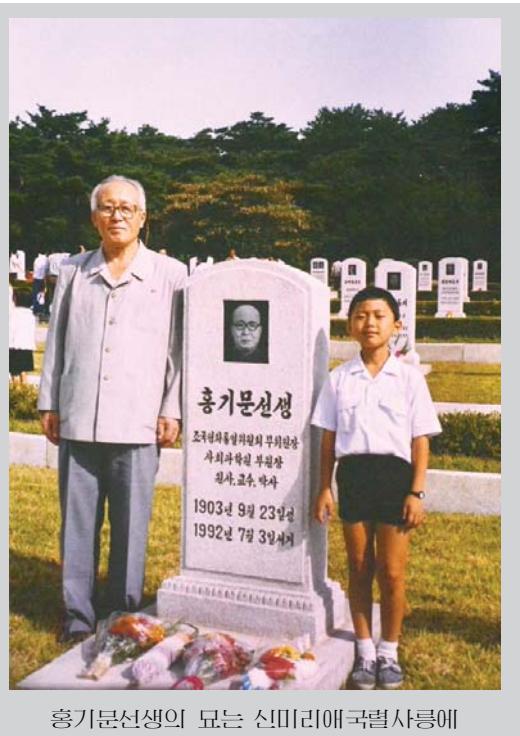
이뿐이 아니다.

홍기문 선생은 과학자로서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는 국제회의들에 참가하여 대외활동을 능숙하게 벌려 공화국의 권위를 만방에 과시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홍기문 선생이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었을 때에는 누구보다 기뻐하시며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를 지니도록 해주시였고 생활에서 불편이 있을세라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해방전 나라잃은 설음을 안고 참된 학문을 탐구하기 위해 모대기던 홍기문 선생이 원사, 교수, 박사의 학위학직을 지니고 공민의 최고영예인 로령영웅칭호를 수여받았으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부의장(당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당시) 등을 역임하면서 생을 빛내일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절세위인들의 품에 안겼기 때문이다.

하기에 홍기문 선생은 생의 말년에 쓴 수기에



서 《…인제는 내 나이가 90고개를 바라보고 있다. 돌이켜보면 짧지 않은 기간이다. 내가 인생의 황혼기중에서 마지막기에 속한다고 볼수 있는 고령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참되고 복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재생의 은인이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한없이 지극하며 용암처럼 뜨거운 사랑, 바다처럼 넓은 도량, 산처럼 크나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주체82(1993)년 4월 9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3대혁명전시관에 전시된 《조선봉건왕조실록》앞에서 걸음을 멈추시고 만족한 시선으로 바라보시며 《사회과학부문 성과전시관에 홍기문선생의 사진도 있습니다. 홍기문선생이 <리조실록>을 번역하였습니다.》라고 그를 뜻깊게 회고하시였다.

나라의 언어학발전에 공헌한 원사 교수 박사 홍기문선생의 유해는 아버지 홍명희선생과 함께 신미리애국렬사릉에 안치되어 있다.

글 본사기자 김지성  
사진 본사기자 김 철

## 우리 나라 역사에 존재한 국가들

# 민족의 시조국가 고조선 (2)

슬기롭고 재능있는 고조선인 민들은 아득한 옛날부터 이 땅에서 자연을 정복하고 자기들의 생활을 개선해나가면서 과학과 문화를 발전시켰다.

고조선인민들이 창조한 높은 문화수준은 발굴된 유적들을 통하여 잘 알수 있다.

고고학적으로 이른시기의 유적에는 비파형단검을 비롯한 청동제무기류와 로동도구, 수레 부속품, 마구류, 치례거리 등이 있다.

그중에서 비파형단검은 대표적인 유물이다.

에서는 별자리를 새긴 석각천문도가 알려졌으며 강상무덤에서 나온 청동실그물치레감은 0.2~0.4mm의 매우 가는 청동실을 뽑아서 그물처럼 짠 치레감으로서 당시의 높은 금속가공기술과 우수한 공예술을 보여주고 있다.

청동합금술도 이 시기에는 더욱 발전하여 동파 주석 또는 연파의 배합비례가 비교적 합리적이고 녹이 잘 쓸지 않게 된 합금제품들을 만들어내였다.

이와 함께 오래전부터 철기를 알고있던 고조선인민들은 B.C. 12세기경에는 철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철가공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팽이와 삽, 도끼, 호미, 낫, 반달칼 등 예리하고 든든한 철제농기구들과 공구들을 널리 만들어냈다.

예리한 날을 가진 철제도구의 발전은 나무로 만든 농기구들을 더욱 개량하고 발전시켰고 보다 생산성이 높은 농기구들을 만들수 있게 하였으며 농업생산을 한층 발전시켰다.

고조선에서는 B.C. 7세기경에 이르러서는 고온야금법에 의한 탄소공구강을 생산해냈다.

이것은 제련기술의 높은 발전수준과 당시 고조선이 고대동방에서 강철을 가장 이른시기에 생산한 나라들중의 하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조선시기에는 질그릇제조기술도 발전하였다.

고조선인민들은 이른시기부터 돌림판을 써서 형태를 만들고 밀폐로에서 환원불꽃을利用하여 구워낸 흑회색이나 검은색

을 띤 질그릇들을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질그릇제조기술은 시기에 따라 차이를 보이면서 발전하였다.

뿐만아니라 농업과 년중행사에 필요한 력서도 만들어냈으며 발전된 천문관측기술과 천문학적지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고조선사람들은 《신지글자》로 불리운 고유한 우리 글자를 창조하였으며 문학과 예술도 발전시키였다.

문학예술작품유산으로는 려옥이라는 녀성이 지은 《공후인》이라는 노래의 가사가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다.

고조선인민들은 자기의 고유한 풍습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조, 기장, 수수, 콩, 보리, 벼 등 여러가지 낱알을 생산하여 그것을 주식물로 삼았으며 집집승의 고기와 물고기를 재료로 하여 음식물을 만들어먹었을뿐 아니라 일찍부터 여러가지 형태의 음식그릇을 만들어 거기에 음식물을 담아먹었다.

뿐만아니라 역삼을 재배하고 누에를 쳐서 베와 명주, 비단을 짜서 여러가지 형태의 옷을 만들어입었으며 원시적인 움집에서 벗어나 난방시설을 갖춘 지상가옥을 짓고 살았다.

고조선인민들은 레절이 밝고 훌륭한 도덕품성을 가진 사람들로 이웃의 여러 나라들에 널리 알려져있었다.

고조선인민들이 이룩하여 높은 훌륭한 문화유산은 그후 민족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본사기자 강경수



비파형단검의 주되는 특징은 검몸과 검자루 및 검자루맞추개를 따로 만들어 그것들을 조립하여 쓰게 되어있는 점이다.

이와 같은 형식은 고조선 시기의 독특한 것으로서 다른 어느곳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그런가 하면 단군조선시기의 유적인 고인돌무덤의 뚜껑돌웃면



# 백두산 (2)

## - 명산중의 명산 -

량강도 삼지연시의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백두산은 조국에서 제일 높은 산으로서 그 웅장함과 장엄함에 있어서 다른 산들에서 볼수 없는 특이한 경관을 이루고 있다.

백두산은 명산중의 명산으로서 특이한 지형학적특징을 가지고 있다.

백두산의 특이한 자연경관은 주로 백두산의 화산활동과 그에 결합된 기후조건을 비롯한 자연지리적요소들과 많이 관련되어 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만년 전에 이 일대에서 지질학적운동으로 지각이 갈라지면서 생겨난 틈을 따라 땅속깊이에서 1 000°C 이상의 뜨거운 돌물이

우로 솟구쳐오르면서 화산이 분출하기 시작하였다.

화산활동의 전반기에는 주로 현무암, 부분적으로 조면암의 용암들이 류출되어 지구대렬하의 량쪽으로 흘러나갔다.

이 용암들의 분출은 10여 차례 반복되었고 그 결과 광대한 백두용암대지가 형성되었다.

백두화산령의 주요화산추들이 형성된 다음 화산활동은 비교적 미약하였다.

이때 백두화산후반에 대연지

해발높이 2 750m  
천지면적 9. 17km<sup>2</sup>  
최대물깊이 384m

봉, 소연지봉, 대각봉, 무두봉, 베개봉, 청봉 등 부속화산들이 형성되었다.

백두산에는 여러가지 빙하지 형들도 발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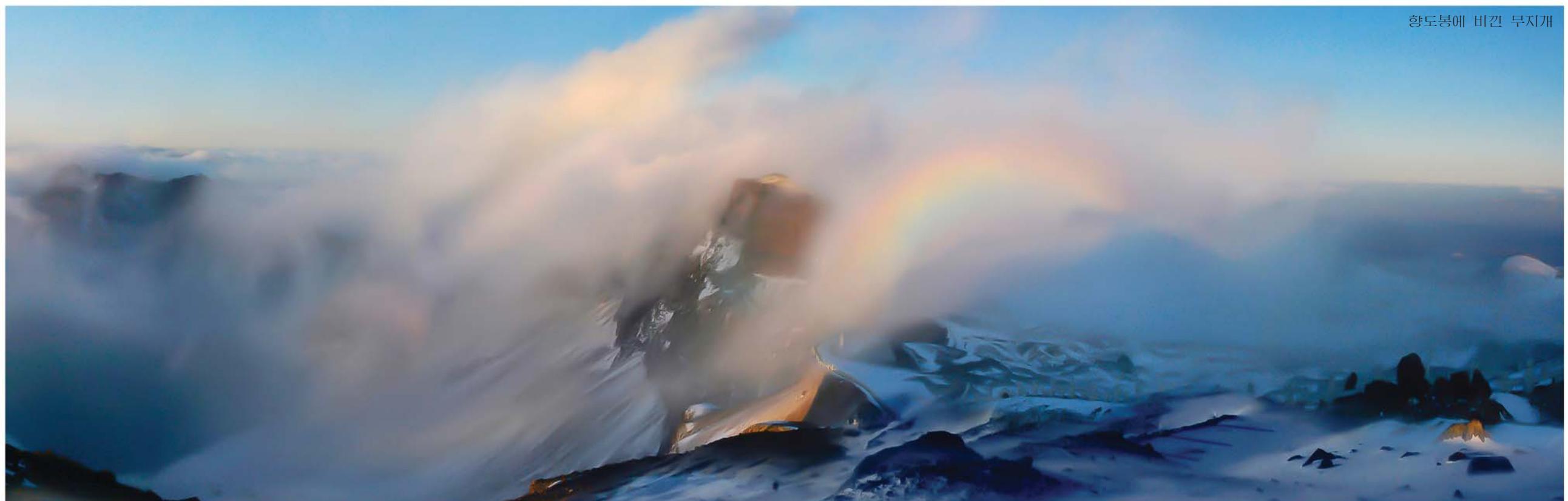
백두산마루는 2 000m이상의 높은 봉우리들이 60°이상의 급한 절벽을 이루면서 병풍처럼 천지를 둘러싸고 솟아있다.

각이한 모양과 높이를 가진 봉우리들은 서로 잇닿아있기 때문에 멀리서 바라보면 유순하고 평펴짐하여 어디서나 오갈

백두산의 해돋이



향도봉에 비낀 무지개



수 있을것 같지만 천지호반에서 둘러보면 산악이 험준하며 벼랑도 높고 험한 칼벼랑으로 되여있다.

백두련봉에는 장군봉과 같이 높고 큰 봉우리가 있는가 하면 낮은 봉우리도 있으며 뾰족봉이

있는가 하면 꽈대기가 마치 가마뚜껑처럼 생긴 두리뭉실한 봉우리도 있다.

천지를 둘러싸고있는 봉우리들은 모두 백두련봉에서 제일 봉인 장군봉에 뿌리를 두고 이와잇닿아있다.

분화구의 외륜산을 이룬 수많은 봉우리들 가운데는 해발높이가 2 500m이상 되는것만 해도 20여개나 된다.

제일 험한 바위벼랑으로 되여있는 비루봉일대는 백두산분화구의 산악미를 대표하는 하나

의 독특한 산체로서 비교적 뚜렷한 줄기를 이루고있다.

백두산의 기후는 해발높이가 높기때문에 고산기후의 특성을 가지고있다.

이 지구는 조국에서 가장 춥고 기후변화가 제일 심한 지역

이다.

그리하여 백두산에서는 하루에도 몇번씩 마치 천지가 조화를 부리는것처럼 비바람 한점 없이 고요하던 호수가에 난데없는 폭풍이 일어나 비구름을 몰아오고 돌을 날리며 대지를 덮

었던 검은구름이 어디론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맑고 푸른 하늘이 나타난다.

그리다가도 금시 내리던 비가 어느 사이에 우박으로 변하여 주먹같은 우박이 앞을 가려 볼수 없을 정도로 쏟아져내리

백두산천지의 해빙기



기도 한다.

우박이 멎으면 한쪽에서는 비에 젖은 꽃송이들이 해빛을 받아 활짝 피여나는데 한쪽에서는 겨울을 방불케 하는 하얀 눈송이들이 날리기도 한다.

백두산의 해돋이는 그 어디서도 볼수 없는 황홀하고 아름다운 해돋이로서 제일가는 경치이다.

먼 동쪽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하면 아득히 펼쳐진 밀림의 바다를 넘어 끝없이 뻗어나간 조국의 산발들, 실안개를 허리에 두른 백두령봉과 기암절벽들에는 감색, 붉은색으로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노을이 피여오르고 삽시에 그 색갈이 점점 짙어져 하늘땅이 모두 불붙는듯 붉게 물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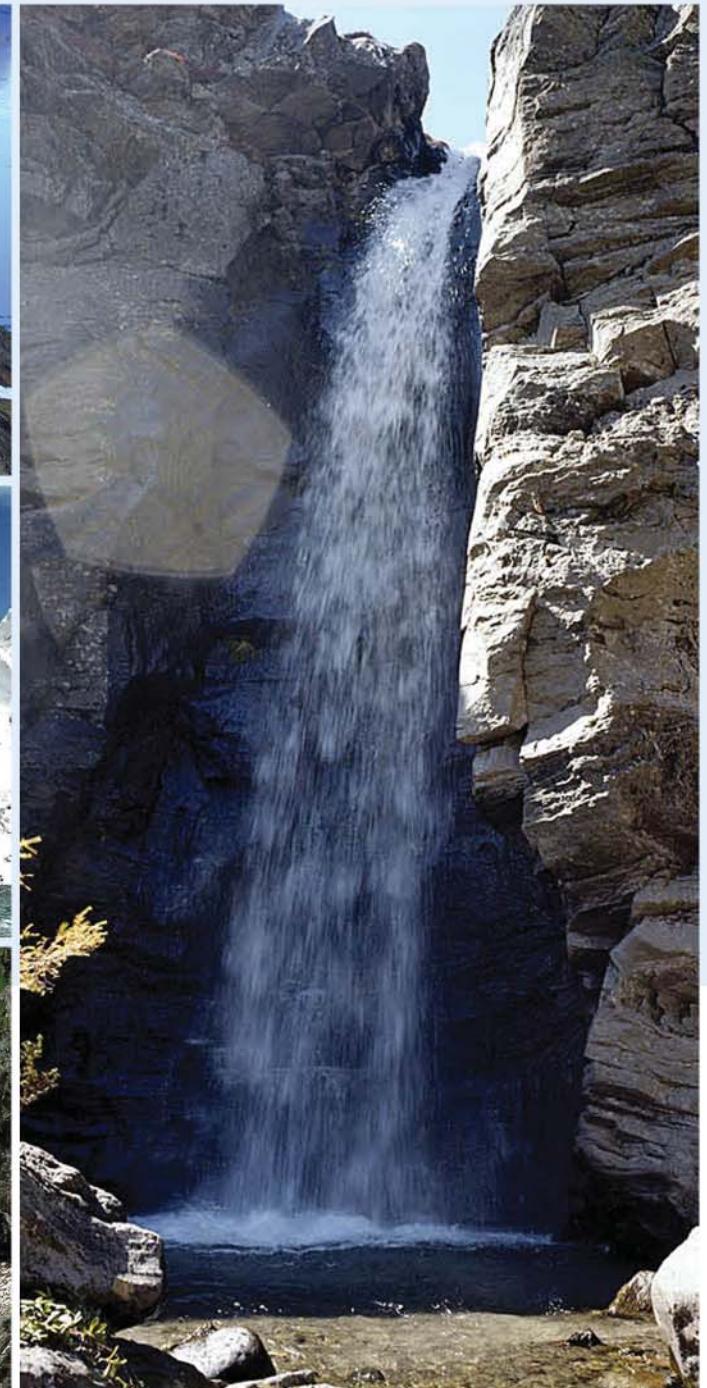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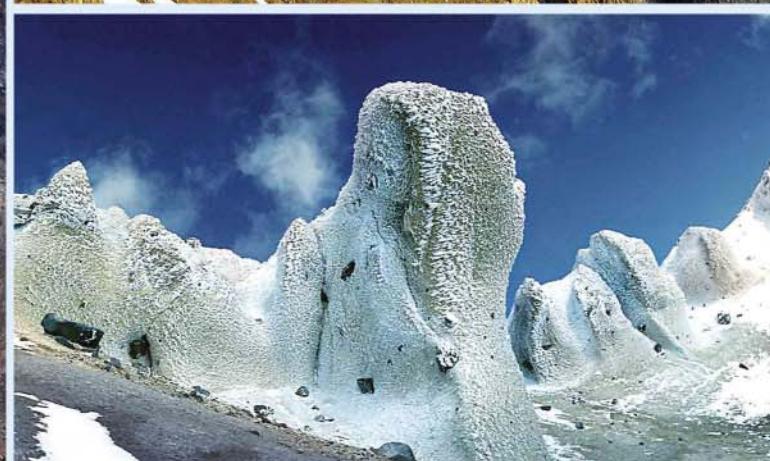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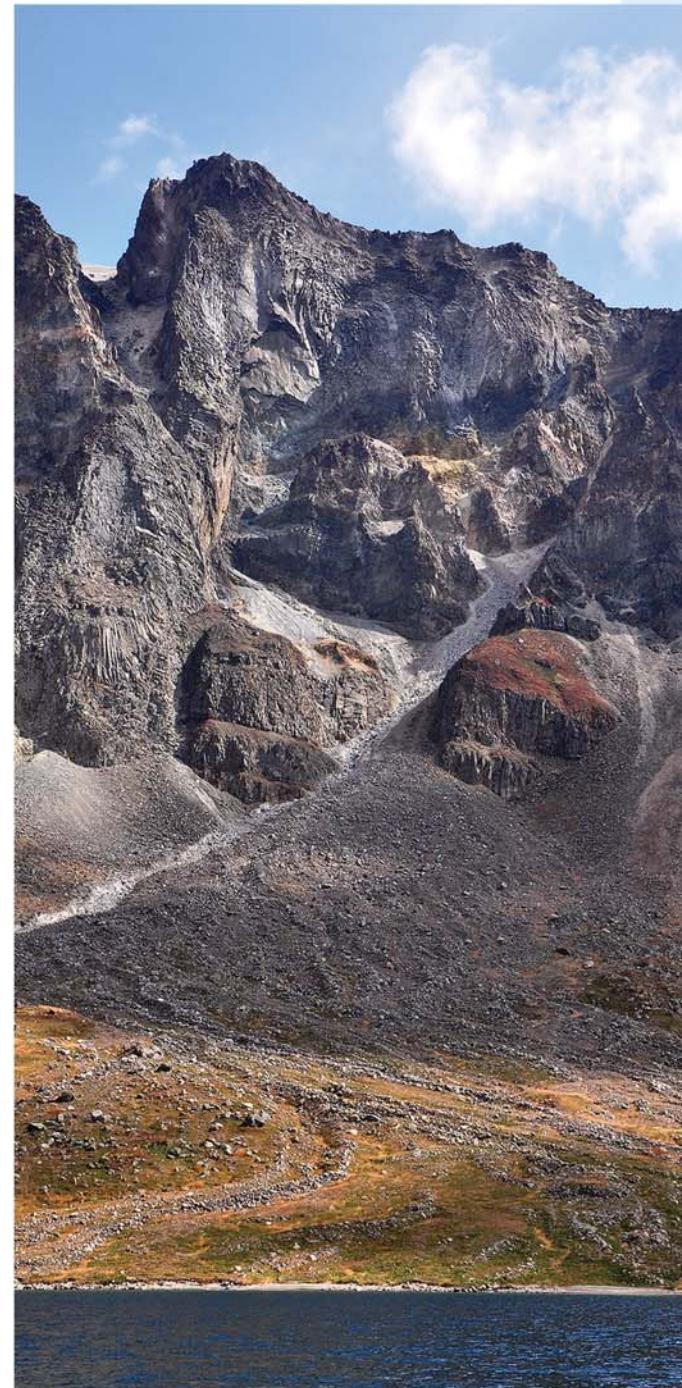
백두산일대에는 백두산천지를 비롯하여 크고작은 호수들과 샘들도 많다.

천지는 백두화산에 분화구가 생긴 다음 그 자리에 물이 고여 생긴 호수로서 조국의 자연호수들 가운데서 물깊이와 물량에 있어서 대비할수 없을만큼 깊고 많다.

면적은 9. 17km<sup>2</sup>이고 최대물 깊이는 384m이다.

백두온천을 비롯한 천지일대의 온천들은 열원적경지에서 볼 때 지열과 화산가스의 열에 의하여 높은 온도를 가지는 온천과 지열을 받아 더위진 물이 솟아오르는 두가지 형태로 구분할수 있다.

백두산에는 천지에 시원을



둔 폭포들도 있다.

천군바위를 지나 압록강변을 따라 올라가느라면 마치 하얀 비단필을 드리운것과 같은 백

두폭포가 있다.

백두산에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세번 깨어내리는 사기문 폭포도 있다.

백두산주변의 50여개소에서 샘들이 용출되는데 그중에서 압록강발원지점, 백두산밀영 샘, 봉수동샘을 비롯하여 많

은 샘들이 천지에 시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백두산의 지형학적 특징을 통해서도 명산중의

명산으로서의 백두산의 장엄하고 웅대한 위용에 대하여 잘 알 수 있다.

본사기자 강경수



잡지 《금수강산》은 인터넷 《조선의 출판물》홈페이지에  
조선아, 로어로 게재됩니다.

<http://www.korean-books.com.kp>

주 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전자우편: flph@star-co.net.kp

